

광 고

원양산업

제 1155 호
(2023년 3월 15일 발간)

창간 : 1972년 8월 1일
등록일자 : 1981년 8월 27일
등록번호 라-9183호 / 월간발행 (비매품)

Contents



협회소식

- 협회 2023년도 정기총회 개최 / 4
- 제4차 원양산업발전종합계획 반영 필요사항 제시 / 5
- 협회, 수산 전문지 기자와 간담회 가져 / 5
- 3월의 수산물 “참치”, 할인행사 진행 / 6
- 2022년 우리나라 어업생산량 전년보다 6.0% 감소 / 7



명예해양수산관 리포트

- ‘23년 2월 보고 내용 / 9
- 요리 만들기
(참치짜글이) / 13



해외수산정보

■ 국제유가 동향

- 3월 MGO 싱가포르 벙커 가격 전월 대비 동일 / 14

■ 참치어업 동향

- 방콕 가다랑어 톤당 1,800 달러 / 16
- PNA, MSC 인증에 FAD눈다랑어 포함 재시도 / 16
- 1월 중서부태평양 선망선 어획량, 4년 내 최저치 / 17
- 1월 PNA 전재량 급감 / 17
- 日 1월 냉동 참치류 수입 통계 / 18
- 日 1월 냉동 눈다랑어 수입 가격 kg당 969 엔 / 19
- 세이셸 가다랑어 가격 상승 / 19
- 3월 만타 가다랑어 가격 약 100 달러 상승 / 20
- 2022년 동부태평양 참치 어획량 전년 동일 / 20
- 아비장 가다랑어 가격 톤당 1,400 유로 / 21
- 스페인 3월 황다랑어 가격 안정세 유지 / 21
- 케냐, IOTC FAD 금지 이의 제출 / 22
- 中 Liancheng, 강화 플라스틱 어선 2척 매입 / 22
- EU 참치캔 구매액 최고치 기록, 28억 유로 가치 / 23
- ISSF “세계 참치어획 85%, 건강한 자원에서 어획” / 24
- 스페인 연구소 “기후 변화, 참치 자원에 타격” / 24

Contents

• 해바라기유·대두유 가격 하락세 지속	/ 25	• BBNJ 협정안 협상 타결	/ 33
• 中-인도네시아, 참치 산업 MoU 체결	/ 25	• 가나, 모든 상업용 어선에 EMS 사용 의무화	/ 33
• 미국 2022년 참치캔 수입 20% 이상 증가	/ 26	• 핀란드 기업, 어류 부산물 식품 활용법 도입	/ 34
• 스페인, 참치캔 부문 혁신 기술 개발 중	/ 26	• 中 원양선단 2022년 어획량 225만톤	/ 34
■ 오징어어업 동향		• 美 2022년 수산물 수입 기록 경신	/ 35
• 남미·페루 대왕오징어 조업 회복	/ 27	• 나미비아 정부, 민대구 경매로 740만 달러 확보	/ 35
• 전세계 오징어채낚기 어업, 4년간 68% 증가	/ 28	• 美 FDA, 수산물 데이터 완전 이력추적 요구	/ 36
		• FMI “美 2023년 수산물 소매 매출 회복세 예상”	/ 36
■ 명태어업 동향		■ 쉬어가는 난 (시)	
• 러, 극동지역 명태, 청어, 대구 어획 성공적	/ 29	• 바다에서 〈이상강〉	/ 37
• 올해 러시아 누적 어획량 96만톤	/ 29	■ 국내 수산 정보	
• 러-중 어업협상 재개	/ 30	• 2월 오징어 국내 동향	/ 38
• 디지털화 : 극동지역 어업허가장 온라인 발급	/ 30	• 2월 명태 국내 동향	/ 40
• 러시아산 명태 H&G 가격 kg당 약 78 루블	/ 31	• SPRFMO 우리나라 전갱이 쿼터 10.5% 증가	/ 42
• 日 2023년 명태 TAC 25만 8,300톤	/ 31	• 한국-영국 간 해기사 면허 상호인정 양해각서 갱신	/ 42
• 러시아 2022년 명태 제품 생산량 8% 증가	/ 32	• 우리나라 주변 해수면, 2100년까지 최대 82cm 상승 전망	/ 43
• 英 명태 소매 판매량, 사상 최초로 대구 추월	/ 32	• 2023년도 제1회 해기사 정기시험 시행	/ 44
■ 각국 수산 동향			

협회 2023년도 정기총회 개최 2023년도 사업계획 및 예산안 의결



우리 협회는 지난 2월 23일 협회 대회의실에서 2023년도 정기총회를 개최했다.

협회는 이날 정기총회에서 2023년도 사업계획 및 예산(안) 등을 심의, 의결했다.

우리 협회 윤명길 회장은 인사말을 통해 “해기사 인력난이 심각한 상황으로 골든 타임을 3~5년으로 보고 있으며 올해 논의될 제4차 원양산업발전종합 계획(‘24~’28)에서 대응 방안이 마련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아울러, “협회는 회원사의 중지를 모으고 이를 바탕으로 관계기관과 협력하여 종합

계획에 실질적인 추진전략과 비전이 제시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협회는 이날 정기총회에서 임기 만료되는 신현애 상무이사(해외협력본부장)를 재선임했다.

협회는 2023년도 주요 사업 추진 계획으로 △해외수산자원 안정적 확보와 해외영토 수호, △원양선단 新활력 증진, △노사협력 증진 및 원양산업 인력난 해소, △경영안정 및 글로벌 경쟁력 제고, △교육지원 및 제도개선 연구·협의, △원양산업 가치 제고 및 정보제공을 제시했다.

제4차 원양산업발전종합계획 반영 필요사항 제시 협회-KMI, 자문회의 개최

우리 협회와 해양수산개발원(KMI)이 지난 3월 7일 ‘원양업계 현황과 문제점 파악을 위한 자문회의’를 화상으로 개최했다.

KMI는 ‘제4차 원양산업발전종합계획(이하 종합계획) 수립 연구’를 수행할 예정으로 종합계획에 반영되어야 할 사항에 대해 협의하고자 동 회의를 개최했다.

이날 회의에는 KMI 정명화 실장 등 연구진 5명, 우리 협회 해외협력본부장, 경영지원본부장 등 8명이 참석했다.

이날 우리 협회는 종합계획에 반영되어야 할 사항으로 △외국인 해기사 승선, △어업 허가제도 유연화, △과도한 규제 완화, △원양어선 적정 척수 도출 및 척수 유지 위한 지원책 마련, △BBNJ 협상 타결에 따른 선제적 대응, △국제환경 변화 대응 지원(EM, MSC 등), △원양어선 안전펀드 확대, △원양산업 지원 시스템 검토, △옴서버 승선비용 지원 확대, △친환경 조업 도구 개발 및 도입 지원, △대양별 국가 수산과학조사선 도입 등을 제시했다.

협회, 수산 전문지 기자와 간담회 가져 원양산업 발전 위한 의견 공유

우리 협회는 수산 전문지 기자들과 지난 3월 6일 양재동 인근 식당에서 만나 원양산업 발전을 위한 의견을 나눴다.

이날 간담회에는 우리 협회 윤명길 회장, 해외협력본부장, 경영지원본부장, 진호정 부장 등이 참석했다.

이날 간담회에서 협회와 수산전문지 기자들은 원양산업이 현재 직면한 상황과 문제점들에 대한 정보를 상호 교환하고 향후 발전 방안을 논의했다.



3월의 수산물 “참치”, 할인행사 진행

3.1~8일, 최대 40% 할인

“3월 7일은 「참치데이」, 영양가득 참치 저렴하게 즐겨요”

우리 협회는 동원산업(주)와 사조씨푸드(주) 등 우리 회원사들이 백화점, 대형마트 등을 통해 진행하는 참치 판촉 행사를 보도자료 배포, SNS 게시 등을 통해 적극 알렸다.

3월 7일은 ‘참치데이’로 매년 이 시기 할인 행사가 진행된다.

사조씨푸드는 3월 1일부터 8일까지 이마트 매장(성수점, 용산점, 자양점, 산본점, 성남점 등)과 횡감용 눈다랑어 모듬회 300g(뱃살 150g, 속살 150g)을 18,800원에 판매했다. 동원산업도 동일한 기간 이마트 매장(영등포점, 연수점, 분당점, 죽전점, 청계천점 등)에서 동일한 제품을 판매했다.

아울러, 동원산업은 동일한 기간 롯데마트 매장(제타플러스, 서초점, 은평점, 월드타워점)에서 횡감용 참치뱃살 모듬회 300g(참다랑어 뱃살 100g, 눈다랑어 뱃살 200g)을 26,980원에 판매했으며 사조씨푸드는 신세계 푸드마켓(청담점, 도곡점)에서 3월 3일부터 7일까지(6일 제외) 할인 판매를 실시했다.

우리 협회 이형균 경영지원본부장은 언론에 배포한 보도자료를 통해 “참치는 DHA, EPA 등의 오메가3 지방산, 비타민 B12·B3, 황산화 물질인 셀레늄 등이 많이 함유되어 있는 건강식품으로 특히 오메가3는 혈관 건강, 두뇌 발달, 치매·성인병 예방, 조울증 완화에 도움이 되며, 또한 비타민 B3·B12는 빈



혈, 소화·신경계, 피부건강 유지에 도움이 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며 “이번 행사를 통해 몸에 좋은 신선한 참치를 저렴하게 구입할 수 있는 기회가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우리 협회가 배포한 보도자료를 인용한 온라인 및 지면 보도는 파이낸셜뉴스, 한국농어촌방송 등 14건이었다.

원양산업협회
6일 · 0

“3월 이달의 수산물 참치데이(3.7) 맞은 슈퍼참치, 연중 가장 저렴하게 즐기세요.”
우리 협회와 사조씨푸드, 동원산업이 함께하는 할인 행사가 진행됩니다.

<이마트(3.1~8)>
횡감용 참다랑어 모듬회 300g(뱃살 150g, 속살 150g) 18,800원

<롯데마트(3.1~8)>
횡감용 참치뱃살 모듬회 300g(참다랑어 뱃살 100g, 눈다랑어 뱃살 200g) 26,980원

<신세계 푸드마켓(청담점, 도곡점)(3.3~5, 3.7)>
비타민 B3, B12, 오메가3 등 몸에 좋은 성분이 풍부하고 맛도 좋은 참치 어떠신가요?
#참치, #참치회, #이마트 #동원, #사조, #롯데마트, #참다랑어



2022년 우리나라 어업생산량 전년보다 6.0% 감소 어업생산금액은 0.4% 감소

해양수산부는 2022년 국내 어업(연근해어업, 해면양식업, 원양어업, 내수면어업) 총생산량이 전년(383.2만톤) 대비 6.0% 감소한 360.4만톤이며, 생산금액은 전년(9조 2,817억 원) 대비 0.4% 감소한 9조 2,413억원으로 집계되었다고 밝혔다.

〈 원양 어업 〉

2022년도 원양어업 생산량은 40만 톤으로, 전년 생산량(44.5만 톤) 및 최근 5년 평균 생산량(46.1만 톤)에 비해 각각 10.3%, 13.3% 감소하였다.

주요 어종별 생산량은 가다랑어 20.2만 톤, 오징어류 4.8만 톤, 황다랑어 5.2만 톤, 눈다랑어 2.1만 톤, 명태 2.2만 톤, 민대구 0.4만 톤, 이빨고기 0.4만 톤 등이다.

대표적인 원양어업 어종인 가다랑어의 경우, 태평양 기후변동(라니냐)이 생산량에 영향을 미친 것으로 분석된다. 태평양 기후변동이 가다랑어의 어군밀도를 상승시켜 어획량은 전년 대비 증가(6.8%) 하였으나, 황다랑어와 눈다랑어는 태평양 표층수온의 상승으로 서식수심이 깊어져 어획량이 전년 대비 감소(황다랑어 △14.6%, 눈다랑어 △10.3%)하는 등 상반된 영향을 미친 것으로 나타났다.

꽂치와 대구는 조업개시 연기(5월→7월), 어장 자원량 감소, 기상악화 등으로 인해 전년 대비 어획량이 감소(꽂치 △28.2%, 대구 △53.2%)한 것으로 추정된다.

올해 원양어업은 신규 어선투입, 포클랜드 수역 어황 호조 등 조업상황 개선으로 주요 어종의 생산량이 증가할 것으로 전망된다. 이와 함께 원양어업 주요 협력국가인 투발루 등 태평양 도서국과의 ODA 추진, 원

양어선 안전펀드를 통한 지속적인 노후화 어선 대체건조 등을 통해 지속가능한 원양어업 및 안정적인 원양생산량을 확보할 계획이다.

〈 연근해어업 〉

2022년 연근해 어업생산량은 총 88.7만톤으로 전년 생산량(94.3만톤) 및 최근 5년 평균 생산량(94.5만톤)에 비해 각각 5.9%, 6.2% 감소했다. 어업생산금액은 총 4조 370억원으로 전년 생산금액(4조 1,504억 원) 및 최근 5년 평균 생산금액(4조 1,259억 원)에 비해 각각 2.7%, 2.2% 소폭 감소했다.

주요 어종별 생산량은 멸치 13.2만톤(△7.9%), 고등어 11.1만톤(△9.3%), 갈치 5.4만톤(△14.4%), 살오징어 3.7만톤(△40.0%), 참조기 1.6만톤(△48.0%) 등 전년 대비 감소했다.

반면, 삼치는 3.6만 톤(15.2%), 청어 2.8만 톤(98.3%), 붉은대게 2.5만 톤(17.3%), 꽃게 2.2만 톤(10.6%) 등 전년 대비 생산량이 증가하였다.

전년 대비 생산량이 감소한 것은 고유가가 지속되고, 조업활동이 활발해야 할 9~10월 주어기에 연이은 태풍(힌남노, 무이파) 등 기상악화로 인해 조업여건이 악화된 것에 기인한 것으로 분석된다. 또한, 오징어, 참조기 등 특정 어종에서 낮은 수준의 자원량이 연중 지속된 것도 한 원인으로 추정된다.

특히, 대표적 대중성 어종인 살오징어는 연중 낮은 수준의 자원량이 지속되고, 고유가로 인해 조업척수가 감소한 것이 영향을 미쳤다. 특히, 10월~12월 주어기에 동해 북측수역의 고수온 영향(2~4℃)으로 오징어 남하회유가 지연되고, 회유경로도 외해로 이동한 것이 생산량 감소에 영향을 준 것으로 추정된다. 일본

의 경우도 1984년 통계 집계 이후 최저 생산량(2.2만 톤)을 기록하였다.

참조기는 주요어획시기에 전년 및 최근 5년 평균 대비 절반 수준의 낮은 자원밀도가 지속된 것이 생산량 감소에 영향을 미친 것으로 파악되었다.

청어는 '21년 20cm 미만 포획금지체장 신설로 어린 청어를 어획하던 업종의 어획강도가 대폭 낮아지면서 경북 연안을 중심으로 자원밀도가 상승하여 생산량이 증가한 것으로 파악된다. 꽃게는 최근 5년간 초기자원량과 유생밀도의 증가, 봄어기와 가을어기 중반까지 높은 연안수온(1.0℃ ↑)의 유지로 연안으로 들어오는 개체수가 상승하여 생산량이 증가한 것으로 파악된다.

해양수산부는 연근해 어업생산량을 회복하기 위해 현재 어업관리체계를 시장 친화적인 산출량 중심 관리체제로 혁신할 예정이다. 총허용어획량(TAC) 전면 도입을 추진하되, 어획량 관리·감독 및 수산자원 관리체계를 강화하고, 조업활동에 불편을 끼치는 어구어법 관리 등 투입 규제는 완화해 나갈 계획이다.

또한, 수산자원량 대비 과도한 어선세력 조정 및 남획을 방지하기 위한 어선 감축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바다숲, 산란·서식장을 조성하는 등 어장환경 개선사업을 통해 서식 환경과 바다생태계를 회복시킬 예정이다.

이와 함께, 어구의 과다사용과 폐어구로 인한 수산자원 피해를 줄이기 위해 생산·판매업 신고제, 어구보유금제 등 어구 전 주기(생산-판매-사용-수거) 관리체계를 구축하여 지속가능한 어업을 위한 어구관리를 강화해 나갈 계획이다.

〈 해면양식업 〉

2022년 해면양식업 생산량은 총 226.8만 톤으로 전년(240.1만 톤) 및 최근 5년 생산량(233.7만 톤)에 비해 각각 5.6%, 3.0% 감소하였다.

해조류와 패류 생산량은 다소 감소하였으나, 부가가치가 높은 어류 생산량이 증가하여 생산액은 3조 3,843억 원으로 역대 최대치를 기록하였다.

주요 양식품목 생산량은 김 55.0만 톤, 굴 30.1만 톤, 넙치(광어) 4.6만 톤, 전복 2.2만 톤, 조피볼락(우럭) 1.6만 톤 등으로 나타났다.

2022년 상반기 굴 생산량은 전년 대비 5.7% 감소하였으나, 이후 회복세를 보여 하반기에는 3.5% 증가하였다. 1년 이상 다년간 사육하는 전복과 조피볼락의 경우 2021년 여름철 고수온 피해의 여파로 2022년 사육 물량이 줄어 생산량이 각각 4.8%, 7.3% 감소하였다.

넙치의 경우 성장이 양호하여 생산량이 전년 및 최근 5년 평균 대비 각각 9.8%, 10.6% 증가하였고, 김은 최근 5년 평균 수준을 유지하였다.

다시마는 2022년 초 이상조류(영양염류 부족)와 강풍 등 어업재해 피해가 발생하여 생산량이 전년 및 최근 5년 평균 대비 각각 18.2%, 10.6% 감소하였으며, 2022년 양식업 생산량 감소분 대부분(93.3%)은 다시마 생산량 감소로 인한 것이다.

2023년 양식업 생산량은 예년 수준으로 회복될 것으로 전망된다. 2022년 여름철과 2023년 초 고수온, 저수온 등으로 인한 어업피해가 크지 않았고, 2022년간 양식수산물 가격이 안정적으로 유지되어 종자 입식량이 증가해 사육 물량이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기 때문이다.

〈 내수면 어업 〉

2022년 내수면 생산량은 총 4.88만 톤으로, 전년 생산량(4.27만 톤) 및 최근 5년 평균 생산량(3.67만 톤)에 비해 각각 14.3%, 32.8% 증가하였다.

내수면 품종 중 왕우렁이 1.0만 톤(전년 대비 0.2만 톤, 27.9%), 송어류 0.3만 톤(전년 대비 0.1만 톤, 22.6%) 등이 증가하였다. 특히 뱀장어는 자연산 실뱀장어 어획 증가에 따른 양식 입식량 증가로 생산량이 전년 대비 15.0%, 최근 5년 평균 대비 55.7% 증가하였다.



명예해양수산물 리포트(2월)

김점봉 세네갈 명예해양수산물



김점봉
명예해양수산물

가. 다카르 항구 : 어선 화재, 사망자 발생

- 10번 방파제 109번 출구에 정박해 있는 어선 "닥터 2D(Docteur 2D)"에서 치명적인 화재가 발생했음.
- 이 화재는 오후 1시경 발생했으며 감비아 선박 위에서 강행된 용접 작업 때문에 발생한 것으로 알려졌다.

나. 유류가격 동향

공급	가격	유종	조사일
다카르	816€/MT	경유	'23.2.26

다. 참치가격 동향

어종	규격(파운드, lbs)	가격(유로/톤)
가다랑어	3.4~10kg	1,700
	1.8~3.4kg	1,650
	1.5~1.8kg	1,500
황다랑어	3.4~10kg	1,750
	1.8~3.4kg	1,650
	1.5~1.8kg	1,500
눈다랑어	3.4~10kg	1,700
	1.8~3.4kg	1,650
	1.5~1.8kg	1,500

김종태 피지 명예해양수산물



김종태
명예해양수산물

가. 피지 정권 교체

- 정권 교체가 이뤄진 후 전임수상 Voreqe Bainimarama와 경찰청장 Sitiveni Qililo's를 현 정권에서 광범위한 직권남용으로 기소 및 구속하였으나 일단 법원의 보석허가로 풀려났으며 이는 향후 정국에 상당한 영향을 미칠 것으로 사료됨.
- 전임수상은 국회의원직을 물러난 상태며 야당의 막후로 활동하고 있음.

나. 일본-피지 리셉션 관련

- 지난달 말 열렸던 일본-피지 리셉션에서 일본측 대표는 2021년 열렸던 태평양제도 지도자 회의에서 5가지 우선순위 협력 분야에 합의함으로써 피지와 의 양자 관계를 강화했다고 강조했다.
- 2021년과 2022년에 일본이 COVID-19 대응 및 복구를 위해 총 4억 달러의 긴급 재정 지원을 제공했을 뿐만 아니라 아시아개발은행을 통해 피지 항공에 5,500만 달러를 제공했다고 함.
- 일본은 지난 1970년 양국 관계가 시작된 이래 피지에 약 16억 달러 상당의 개발 원조를 제공했다 함.

다. 코로나19 동향

- 피지는 지난 2월 14일을 기하여 코로나 관련 모든 입·출국 검역 제한 사항을 해제하였음.



- 현재 피지 인구의 95퍼센트 이상이 1, 2차 접종을 받았음.

라. 참치가격 동향

어종	규격	가격(\$/톤)	기타
날개다랑어	10kg 상	2,800	로인가공용(PAFCO)

마. 유류가격 동향

공급	가격	유종	조사일
TOTAL	1,150달러/MT	MGO	'23.3.10

오시영 사모아 명예해양수산물관



오시영
명예해양수산물관

가. 어업 동향

- 금월 사모아 및 연근해 어장인 쿡 아일랜드 어장에서의 평균 어획율은 날개다랑어 0.5~1.0톤, 황다랑어 및 눈다랑어 0.2~0.4톤임.

나. 참치가격 동향

어종	규격	가격(\$/톤)	기타
황다랑어	라운드	1,730	
눈다랑어	라운드	1,530	
가다랑어	라운드	1,530	

다. 유류가격 동향

공급	가격	조사일
Clipper; Oil	\$3.50(gallon)	'23.3.8

윤정환 뉴질랜드 명예해양수산물관



윤정환
명예해양수산물관

가. 어획동향

- 2월간 오징어 어획량이 거의 전무하였으나 3월 초부터 예년과 유사한 양이 어획되기 시작되었음.
- 하지만 어획 위치와 사이즈 등 예년과 많이 다른 패턴을 보이고 있음.
- 해수면 온도가 높아졌다는 선장들의 의견이 있음.

나. 유류가격 동향

공급	가격	유종	조사일
Z	1,136달러/MT	MGO	'23.3.8

다. 어류가격 동향

어종	규격	단가	기타
SQUID	2L	4,850	-
	L	4,850	
	M	3,950	
	2M	3,450	
	S	3,500	
	2S	-	

이윤홍 가나 명예해양수산물관



이윤홍
명예해양수산물관

가. EU 옐로카드에 대한 시민사회 단체 의견

- 환경 및 천연자원 연구 이니셔티브(ENRRI - EfD 가나)의 책임자인 Wisdom Akpalu 교수는 만약 가나에서 어업법이 엄격하게 적용



되었다면, 가나는 두 번째 옐로카드를 받지 않았을 것이라고 말했다.

- 가나는 2021년 6월 2일에 EU에 의해 옐로카드를 발급받았음.
- Akpalu 교수는 정부가 어업 부문을 살리기 위해 프리믹스 연료에 대한 보조금을 즉각 철회할 것을 요구했음.
- 그는 프리믹스 연료에 대한 보조금이 자본 과잉(가나 해역에서 적정한 척수를 초과하는 많은 카누)과 국가의 어류 자원 고갈을 촉발하는 남획에 심각하게 기여하고 있다고 생각함.
- 수산양식개발부(MoFAD) 차관인 Moses Animd은 해수부나 기관의 의견을 듣지 않고 해당 분야에 대한 보고서를 일방적으로 발표하는 시민사회단체(CSO)들에 대하여 해수부가 이를 가볍게 여기지 않을 것이라고 경고했음.

나. 유류가격 동향

공급	가격	유종	조사일
양상급유	1,060달러/kl	MGO	'23.2.28

정승화 파푸아뉴기니 명예해양수산물관



정승화
명예해양수산물관

가. VDS 관련

- 2022년까지 PNG 수산청은 예산의 확보를 위해서 외국국적 어선에 적용하던 VD(USD 10,500/day)를 PNG에 직접 투자한 통조림회사의 어선에도 똑같이 적용하는 방안을 진행해 오던 중, 올해부터는 차등을 두는 것에 대한 정

책이 국무회의를 통과하였다는 소식임.

- 그 결과 지난 3월 3일 수산청 보드 미팅에서는 아래와 같은 형태의 결정을 하였음.
- 1) USD6500/day: 통조림 회사 어선들
- 2) USD7500/day: Local Based Foreign Vessels
- 3) USD8000/day : 한 대만회사가 대상인데, 이름만 현지 운영회사로 해놓고 일체 다른 사업은 PNG와 관여치 않는데 그 이유가 있음.

나. 연승선 라이선스 관련

- 어선(특히 중국 및 대만)에 대하여 국내 기업이 라이선스를 발급받아주는 조건으로 행해 오던 Charter 형태의 사업이, 많은 비리와 국내 산업에 도움이 되지 않고 있다는 지적에 의하여 곧 취소될 위기에 있음.
- 조업선들은 그간 수산청의 지도 사항을 교묘하게 벗어나 일부 화교들의 사업으로 확장되는 모양새를 해 왔으나, 수산청 및 수산협회의 인지로 인하여 곧 퇴출될 것으로 보임.

다. 대외활동 내역

- 지난달 보고했던 밀린베이주 새우 조업선 매입 관련하여, 수산청 직원 및 업계 관계자들의 호주 케인즈 방문이 이뤄졌음(2월 3째주~3월 첫째주).
- PNG는 자체적으로 수산업에 도전하기에는 많은 부분에서 부족한 것이 사실이며, 또한 자체적으로 도전을 하지 않은 개발 가능한 수산업이 도처에 존재하는 것도 사실임.
- 동 사업이 순조로이 진행 시 본인의 회사와 연계하여 진행될 예정이며,
1 단계 : 새우 조업
2 단계 : Mud Crab 사업



3 단계 : 지역 협동조합 운영(생필품 공급 및 어구들 소개)

4 단계 : 사업 지역 확장(밀리베이주는 주의 해상영역이 PNG 전체 땅보다 더 넓음)

등등 지속적인 사업을 진행할 예정이며, 대부분의 사업이 현지인들의 손에서 진행이 되는바, 한국에서의 지원도 요구되는 바임(새마을 운동-수산물분야).

라. 어류가격 동향

어종	단가	규격	기타
냉동 바다가재 꼬리	46달러	kg	

마. 유류가격 동향

공급	가 격	유종	조사일
TWL Logistics Ltd	0.8885달러 /리터	Diesel	'23.3.8

〈계재순서 : 명예해양수산물 성명 가나다순〉





참치짜글이



❖ 이렇게 준비하세요

- 재료 : 참치 1캔(150g), 감자 1/2개, 호박 1/4개, 양파 1/2개, 청양고추 1/2개, 홍고추 1/3개, 대파 1대, 새송이버섯 1개

<소스>

멸치육수 2컵, 고추장 1큰술, 고춧가루 1큰술, 국간장 1작은술, 소금 약간, 후추 약간, 다진 마늘 1작은술

❖ 이렇게 만드세요

- ① 감자, 호박, 양파는 사방 1.5cm의 크기로 썰어준다.
- ② 청양고추, 홍고추, 대파 어슷썰고, 두부는 사방 1.5cm의 크기로 썰어준다.
- ③ 소스 재료를 섞어 양념장을 만든다.
- ④ 팬에 참치캔 기름을 두르고 1번의 채소(감자, 호박, 양파)를 볶는다.
- ⑤ 멸치육수, 3번의 양념장과 참치를 넣고 5분간 중약불에서 끓인다.
- ⑥ 2번의 채소(청양고추, 홍고추, 대파)를 넣고 → 국간장, 소금, 후추로 간을한다.



3월 MGO 싱가포르 벙커 가격 전월 대비 동일

3월 7일 기준 815 달러

국제유가가 미국 연방준비제도(연준)의 통화정책 우려와 중국의 경기 회복 기대감에 일희일비하는 모습을 보이다가 미국 실리콘밸리뱅크(SVB) 파산에 따른 금융시장 불안 여파로 최근 하락했다.

3월 13일 기준 두바이유 가격은 배럴당 81.01 달러, WTI 가격은 74.80 달러, 브렌트유 가격은 80.77 달러를 기록했다. WTI 가격은 지난 2월 22일 이후 최저치다.

3월 7일 기준 싱가포르 선박용 경유(MGO) 벙커 가격은 톤당 815 달러로 2월 7일(800 달러) 대비 2% 상승했다.

3월 평균(3.1~3.7) 가격은 812 달러로 전월 평균(2.1~2.8) 811 달러 대비 거의 동일했다. 전년 3월(3.1~3.1) 평균과 비교해서는 24% 하락했고, 전전년 3월과 비교해서는 51% 상승했다.

2023년 평균(1.1~3.7) 가격은 848 달러로 전년(1.1~12.31) 평균 대비 18% 하락, 전전년 평균 대비 45% 상승했다.

ING의 애널리스트들도 보고서에서 “안전자산 선호로 국채와 금 가격이 오르고 원자재 가격은 하락하고 있다”며 “다만 중국의 강한 매수세로 유가 하락세는 제한될 것”으로 예상했다.

또 “지난해 말 이후 중국의 코로나19 봉쇄 완화 조치로 중국뿐만 아니라 아시아 전체에 수요 회복 기대가 있다는 점에서 하락세는 제한될 것”이라고 재차 강조했다.

다만 금융시장 불안으로 인해 미 연방준비제도(연

준·Fed)의 공격적인 금리 인상 기대는 완화됐다.

프라이스 그룹의 필 플린 애널리스트는 “연준이 공격적으로 금리를 올리는 데 더 어려움을 겪을 것이라는 점에서, 또한 이것이 달러 약세를 일으킬 것이라는 점에서 이날 유가 급락은 다소 놀랍다”고 말했다.

주요 6개 통화에 대한 달러화 가치를 보여주는 ICE 달러지수는 1%가량 하락한 103.646 근방에서 거래됐다.

달러화는 연준의 3월 0.50%포인트 금리 인상 가능성이 크게 줄어들면서 하락했다. 금리 선물시장에서 연준이 3월에 0.50%포인트 금리를 인상할 가능성은 장중 0%로 전장의 40%에서 크게 하락했다.

금리 동결 가능성은 전장의 0%에서 37%로 높아졌고, 0.25%포인트 금리 인상 가능성은 62%를 기록했다.

한편, 올해 국제유가를 보는 전문가들의 시각은 현재 수준인 배럴당 70~80달러선에서 움직일 것이란 전망과 하반기부터 반등해 배럴당 90~100달러까지 급등할 것이란 입장으로 갈리고 있다.

시장에서 미 경기 둔화에 따른 원유 수요 감소에 대한 우려가 커지면서 유가도 하방 압력을 받을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또 원유 성수기인 겨울철이 끝난 데다, 예상보다 따뜻한 겨울 날씨로 원유와 휘발유 재고가 늘어난 점도 유가 상승세를 제한할 요인으로 꼽힌다. 국제금융센터에 따르면 올해 2월 말 기준 미국 원유 재고는 4억8000만배럴로 한 달 사이 7% 늘었다. 이는 21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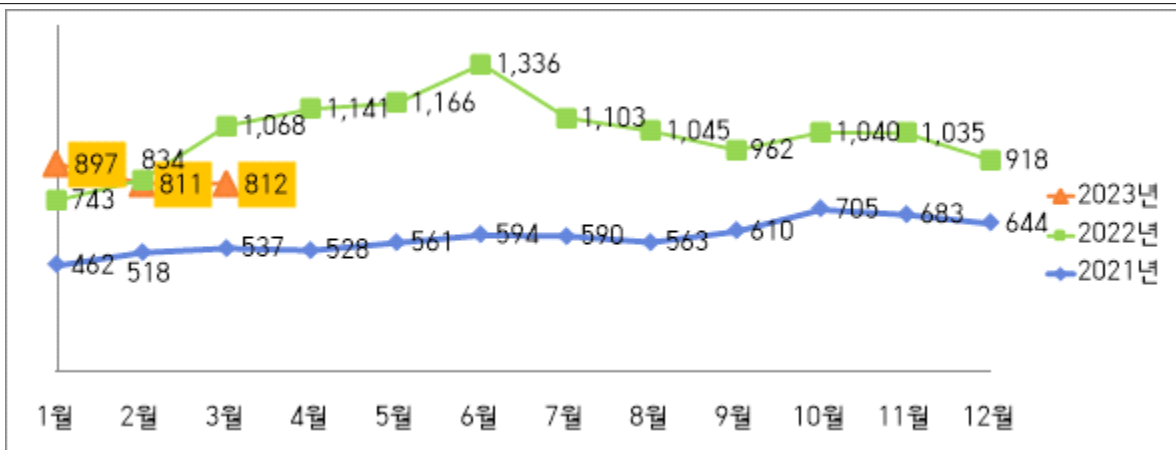
월 만에 최고 수준이다.

반면 일부 시장 전문가들은 중국 경기 반등, 해외여행 회복에 따른 비행기 운항 정상화 등으로 하반기 들어 수요가 늘면서 연말에는 유가가 배럴당 100달러까지 급등할 수 있다고 전망했다. 미 에너지정보청(EIA)은 올해 중국의 원유 수요가 하루 1,580만배럴에 달할 것으로 추정했다. 역대 최대 규모다. 제프 커리 골드만삭스 연구원은 “중국 수요에 힘입어 12~18개월 내 유가가 다시 급등할 가능성이 높다”며 “올해 4분기 유가가 배럴당 100달러까지 상승할 것”이라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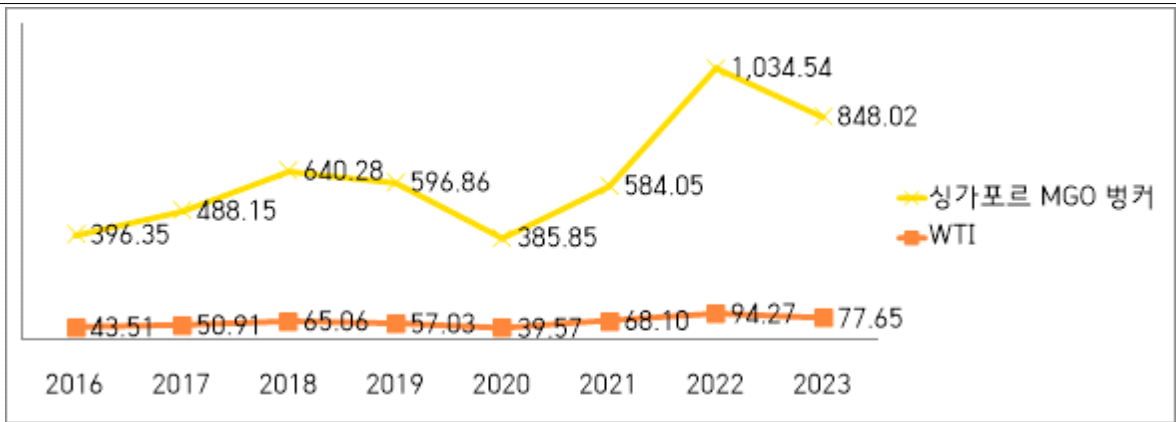
말했다. 모건스탠리는 올해 하반기 북해산 브렌트유가 배럴당 90~100달러 수준까지 오를 수 있다고 예측했다.

중국 외에도 인도를 포함한 아시아 국가들의 경제 활동이 재개되면서 원유 소비도 살아날 것으로 예상된다. 금융정보회사 리피니티브에 따르면 지난 1월 아시아 지역 원유 수입은 하루 2913만배럴로 역대 최고치를 기록했다. 미국과 유럽을 중심으로 항공유 수요가 증가하고 있다는 점도 원유 수요를 자극하는 요인이다.

월 평균 싱가포르 벙커 가격



연 평균 MGO 벙커, Brent, WTI 가격





방콕 가다랑어 톤당 1,800 달러

중서부태평양 어획량 부진 원인

업계 소식통에 따르면 3월 태국 방콕 냉동 가다랑어 원어(1.8kg 이상)의 거래가 톤당 1,800 달러에 체결되었다. 이는 2월 보고된 마지막 거래 대비 약 6% 상승한 금액이다.

한 주요 가공업체 관계자는 가격은 확정되었으나 약속된 물량은 확실하지 않다고 말했다. 타이유니온(Thai Union)은 회사 웹사이트에 2월 말 대량 구매 원어 가격을 톤당 1,800 달러로 표기했다. 가다랑어 가격은 1월 중순 이후 1,700 달러 대였다.

생산자들에 따르면 가다랑어 공급은 부진한 상태이며, 중서부태평양 어획량 관련 데이터가 이를 증명한 다. 1월 나우루협정당사국(PNA) 항구에서의 전제량은 4만 7,000톤으로, 12월 대비 2만 2,000톤이나 감

소했다. 2022년 태국 가공업체들은 월 평균 4만 5,600톤의 가다랑어를 매입했다.

가공업체 수요는 올해 들어 약 2개월 이상 약세를 보이고 있다. 한 소식통에 따르면 중계업자들은 중서부태평양 어획 부진을 우려하고 있다. 공급 부족이 계속되고 3월 가다랑어 주문량이 증가하면 톤당 2,000 달러를 넘어설 수도 있다는 우려가 나오고 있다.

다른 가공무역 허브에서도 가다랑어 원어 가격이 강세를 보이고 있다. 만타 가다랑어 가격은 톤당 1,850 달러, 세이셸에서는 톤당 1,515 유로(약 1,612 달러) 선에서 거래가 이루어지는 것으로 전해졌다.

* 기사 출처: Atuna, 2023년 3월 7일자

PNA, MSC 인증에 FAD·눈다랑어 포함 재시도

중서부태평양 MSC 인증 재평가에 포함

세계 최대 참치 어업인 나우루협정당사국(PNA)이 FAD·눈다랑어 어업에 대한 해양관리협의회(MSC) 인증을 재시도 중이다.

지난 2월 24일, PNA는 MSC 인증 재평가를 개시했다고 발표했다. 인증 어업은 5년마다 재평가를 의무적으로 받아야 한다. 이번 재평가에는 FAD 및 눈다랑어 어업에 대한 추가 인증도 포함된다.

적합성평가기관(CAB)인 Acoura Marine Ltd trading(LRQA)의 의견초안보고서에 따르면, 평가 단위는 중서부태평양의 모든 선망선단이 어획하는

가다랑어, 황다랑어, 눈다랑어에 관한 것이다. 파푸아뉴기니, 키리바시, 마이크로네시아, 마셜제도, 나우루, 팔라우, 솔로몬제도, 투발루, 토켈라우 EEZ에서 어획된 모든 어획물이 대상이다.

의견초안보고서에는 4월 23일까지 이의를 제출할 수 있다. 이의 제출을 원하는 이해당사자는 담당 CAB인 Acoura Marine Ltd trading에 연락해야 한다.

* 기사 출처: Atuna, 2023년 3월 2일자



1월 중서부태평양 선망선 어획량, 4년 내 최저치 가다랑어 남쪽으로 이동 징후

중서부태평양 조업 선망선이 올해 1월에 사용한 조업 일수는 4,404일로 지난해 12월 4,156일 대비 증가했다. 지난해 1월 대비 16% 증가했으며 1월에 이렇게 높은 수준을 기록한 적은 없었다. 전반적으로 보면 4년 내 최고 수준으로 2021년 5월과 비슷한 수준이다.

선박조업일수제도(VDS) 사용일수는 3,985일로 역시 최고치를 기록했다. 지난 몇 달 동안 서부 수역에서 더 많은 참치가 어획되었다. 파푸아뉴기니(PNG) 수역에서 전체 중서부태평양 조업 노력의 3분의 1 이상이 발생했다. 마이크로네시아 수역까지 합치면 60%에 달한다. 키리바시를 제외한 모든 EEZ와 공해에서 조업 노력이 증가했다.

올해 1월 어획량은 더 많은 노력에도 불구하고 8만 7,939톤으로 지난해 12월 10만 4,502톤 대비 감소했다. 일일 적당 평균 어획량은 20톤으로 2021년 9월 19

톤을 제외하고는 4년 내 최저치이다. 2022년 1월에는 33.2톤, 2021년 1월에는 약 35톤이었다.

수역별 어획량을 보면 PNG와 마이크로네시아 수역 일일 적당 평균 어획량은 20톤으로 감소하며 예상한 것만큼 성공적이지 못했다. 남동부 토켈라우, 투발루를 제외한 모든 EEZ와 공해에서의 어획량이 감소했다. 토켈라우 수역 일일 적당 평균 어획량은 34.7톤으로 최고치를 기록했다.

가다랑어 일일 적당 평균 어획량은 17톤으로 4년 내 최저치를 기록했다. 지난해 1월에는 33.2톤이었다.

9kg 이상 황다랑어는 지속적으로 어획이 악화되어 1월 일일 적당 평균 어획량이 12월 대비 59%나 감소한 1톤에 그쳤다. 소형 황다랑어 어획량 또한 감소하면서 9kg 이상과 비슷한 수준으로 나타났다.

* 기사 출처: Atuna, 2023년 2월 27일자

1월 PNA 전재량 급감 전월 대비 2만톤 가까이 감소

1월 중서부태평양 선망선 어획량이 4년 내 최저치로 급감한 가운데 운반선 전재량도 크게 감소했다.

PNA 항구에서의 참치 전재량은 4만 7,604톤으로 지난해 12월 대비 2만 2천톤이나 감소했다. 이는 FAD 조업 금지 시기였던 9월과 비슷한 수준이다.

전재의 대부분은 서부 지역에서 발생했다. 라바울과 마당 같은 파푸아뉴기니(PNG) 항구에서의 전재량이 2만 5,000톤으로 가장 많았지만 전월 대비로는 15% 감소했다. 폰페이, 코스라에와 같은 마이크로네시아 항구에서의 전재량은 전월 대비

60% 감소한 1만톤이었다.

키리바시 항구에서의 전재량은 2,500톤으로 전월 9,000톤에 비해 크게 감소했다. 나우루와 투발루 항구에서의 전재는 양국 EEZ 선망선 어획량이 거의 없었기 때문에 발생하지 않았다.

1월에 전재된 물량은 대부분 2~3주 내에 태국, 필리핀, 한국, 라틴아메리카 가공 허브로 운송될 예정이다.

* 기사 출처: Atuna, 2023년 2월 28일자



日 1월 냉동 참치류 수입 통계

한국산 눈다랑어 84톤

		(단위: 톤)
어종·국가		1월
날개다랑어	한국	-
	대만	27
	바누아투	-
	기타	105
	소계	133
황다랑어	한국	173
	중국	54
	대만	1,295
	필리핀	987
	인니	26
	미국	-
	바누아투	56
	피지	16
	키리바시	4
	마셜제도	180
	기타	1,662
	소계	4,453
눈다랑어	한국	84
	중국	136
	대만	1,717
	필리핀	-
	인도네시아	1
	세이셸	562
	바누아투	41
	기타	36
	소계	2,578
남방참다랑어	한국	-
	대만	6
	호주	-
	소계	-

* 기사 출처: 일간수산경제신문, 2023년 3월 3일자



日 1월 냉동 눈다랑어 수입 가격 kg당 969 엔 전월 대비 11% 하락...7개월 만에 1,000엔 미만 기록

일본 재무성 통계에 따르면, 참치류의 1월 수입 실적은 신선·냉장 제품 수입량 175톤(전년 동월 대비 31% 감소), 수입액 4억 3,600만 엔(동등), 냉동 수입량 1만 2,080톤(31% 증가), 수입액 171억 6,500만 엔(64% 증가), 가공품 수입량 3,316톤(7% 감소), 26억 1,400만 엔(14% 증가)을 기록했다. 전체 수입량 합계는 1만 5,571톤(19% 증가), 수입액 합계는 202억 1,500만 엔(53% 증가)이다.

2022년 통틀어 전반적으로 우상향 추세였던 냉동 눈

다랑어 GG(아가마·내장 제거)의 1월 평균 수입 단가는 kg당 969 엔(전년 동월 대비 1% 하락)을 기록했다. kg당 1,100 엔 가량이던 2022년 12월 가격과 비교하면 11% 하락했다.

수입량의 최대 비중을 차지하는 대만산의 평균 단가는 kg당 975 엔(1% 하락)이다. 냉동 눈다랑어 GG 수입 단가가 kg당 1,000 엔 미만을 기록한 것은 2022년 6월 이후 7개월만이다.

* 기사 출처: 일간수산경제신문, 2023년 3월 3일자

세이셸 가다랑어 가격 상승 어획량 40~50% 감소

인도양 선주들은 현재 가다랑어를 톤당 1,500~1,525 유로(1,596~1,623 달러)에 판매하고 있다.

현재 세이셸 가다랑어(1.8kg 이상) 현물 가격은 올해 초 1,425 유로(1,516 달러)보다 6.3% 상승한 1,515 유로(1,612 달러)로 형성되어 있다.

1월과 2월은 역사적으로 참치 어획량이 적은 달이다. 그러나 일부 소식통에 따르면 어획량이 지난해 동기 대비 40~50% 감소했다.

가공업체들은 지난해 구매자들과 계약하고 올해 1분기에 납품해야 하는 물량 때문에 어려운 입장에 처해 있다. 그들은 역사적으로 1분기에 가격이 낮았기 때문에 더 낮은 가치에 배팅했다. 그 결과 이제 세이셸, 모리셔스, 마다가스카르의 가공공장들은 납품 계약을 이행해야 하기 때문에 높은 가격으로 원재료를 구매해야 한다. 원어 부족은 업체를 긴장시키고 있다.

한 소식통은 인도양의 상황이 다른 수역에 비해 상대적으로 안정적이라고 말했다. 그는 중서부태평양에서 가다랑어 어획량이 적을 뿐 아니라 크기가 작고 미성숙어가 많이 잡혀 자원에 좋은 소식이 아니라고 말했다.

봄에는 참치캔 구매를 위한 새로운 입찰이 시작된다. 3월에 엄청난 양의 가다랑어가 잡히지 않는 한 업계 전문가들은 엄청난 가격 하락은 없을 것이라고 예상한다.

가다랑어 어획량이 감소한다는 것은 소형 황다랑어 어획량도 감소한다는 것을 의미한다. 그러나 세이셸 황다랑어(10kg 이상) 가격은 톤당 2,500 유로(2,659 달러)로 동일한 수준을 유지했다.

* 기사 출처: Atuna, 2023년 3월 3일자



3월 만타 가다랑어 가격 약 100 달러 상승

톤당 1,800~1,850 달러...동부태평양 어획 감소 영향

동부태평양 금어기가 끝난 지 1개월 반이 조금 지난 현 시점에서 선망선단의 가다랑어 어획이 여전히 부진했고, 그 결과 에콰도르 만타의 원어 가격은 상승했다.

현재 만타 냉동 가다랑어 원어 1.8kg 이상 가격은 톤당 1,800~1,850 달러 선에서 형성된 것으로 전해졌다. 이는 가공업자들이 1개월 전 대비 톤당 약 100 달러 상승한 가격을 지불하고 있음을 의미한다. 소식통에 따르면 어업 부진에도 불구하고 수요는 높은 것으로 전해졌다.

만타 가다랑어 가격은 2022년 들어 상당한 기간 동안

톤당 1,850 달러를 기록하며 '뉴 노멀'이 되었다. Atuna에 따르면 이전에 이 수준으로 높아진 것은 2017년이 마지막이다.

그러나 동부태평양 선망선단 측은 어획이 조만간 개선되어 적어도 몇 주 전 수준을 회복할 것으로 낙관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가공업체들은 가격을 유지하고 이 이상으로 상승하지 않도록 주의를 기울이는 것으로 전해졌다.

* 기사 출처: Atuna, 2023년 3월 3일자

2022년 동부태평양 참치 어획량 전년 동일

가다랑어 8% 감소, 황다랑어 14% 증가

2022년 동부태평양 참치 어획량은 전년 대비 0.2%(1,521톤) 증가한 64만 8,707톤을 기록했다. 가다랑어 어획량은 8%(2만 6,918톤) 감소한 31만 3,010톤이다. 에콰도르와 미국 선망선 어획량은 각각 12%, 17.5% 감소했다.

두 번의 금어기가 있는 하반기의 가다랑어 어획량은 13만 6,385톤으로 연간 어획량의 43%를 차지했다.

지난해 만타 가다랑어(1.8kg 이상) 가격은 1월에 1,650 달러로 시작해서 3월부터 1,800 달러 이상을 유지하다가 10월에 1,900 달러까지 상승했다. 이후 연말에는 1,725 달러까지 하락했다.

지난해 중반에 황다랑어 어획량이 가다랑어 어획량을 거의 넘어섰지만 추세가 계속 이어지지는 않았다. 지난해 황다랑어 어획량은 14% 증가한 28만 6,449톤을 기록했다. 미국(12.5% 감소)을 제외한 모든 국가 선단의 황다랑어 어획량이 증가했다.

하반기 황다랑어 어획량은 11만 6,556톤으로 연간 어획량의 41%를 차지했다.

지난 5년 동안 눈다랑어 어획량은 지속적으로 감소했다. 2020년에는 12.5%, 2021년에는 18%, 2022년에는 20% 감소했다.

* 기사 출처: Atuna, 2023년 2월 20일자



아비장 가다랑어 가격 톤당 1,400 유로

황다랑어 가격 톤당 2,550~2,600 유로

코트디부아르의 참치 브로커에 따르면, 아비장의 냉동 가다랑어 원어 1.8kg 이상의 최신 거래 가격은 톤당 1,400 유로(약 1,484 달러)이다. 이 원어들은 지난 1월 초에 하역되었다.

황다랑어(10kg 이상)의 경우, 최신 거래 가격은 톤당 2,550~2,600 유로(약 2,723~2,776 달러)이다.

대서양 선단은 주로 집어장치를 가동하기 때문에, 현재 공급 상황은 매우 좋지 못하다. FAD 금어기 동안 황다랑어 스쿨조업 시즌이 12월 말에 시작되고, 선망선단은 1~2월 동안 어획에 문제가 없는 편이다. 그러나 지난 2개월 간 어획량은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50% 미만 수준이라고 소식통은 설명하였다.

스쿨조업 가다랑어 어획량도 제한적이다. 일반적으로 FAD 금지 기간 동안 대서양 선단의 약 1/3이 수리·점

검을 위해 조선소에 머무르며 나머지는 수량을 줄여서 조업한다.

참치 환승항 역할을 하는 아비장에는 지난해 33만톤의 참치가 양륙되었다.

소식통은 가공업체들이 주문을 맞추기 위하여 생산 속도를 높여야 하기 때문에, 가다랑어 가격이 톤당 1,450~1,500 유로 혹은 그 이상이 될 것으로 예측했다. 황다랑어는 톤당 2,500~2,660 유로 혹은 그 이상이 될 수 있다.

소식통은 손질된 어획물을 20피트 컨테이너로 EU에 운송할 경우 비용은 톤당 180 유로 가량인 반면, 아비장 출발-이탈리아행 40피트 리퍼 냉동 로인의 운송비는 톤당 250 유로라고 덧붙였다.

* 출처: Atuna, 2023년 3월 10일자

스페인 3월 황다랑어 가격 안정세 유지

톤당 2,800~2,850 유로...4~5월 가격 상승 전망

업계 소식통에 따르면 3월 스페인 황다랑어 가격은 톤당 2,800~2,850 유로 수준을 유지하는 것으로 전해졌다. 스페인의 한 참치캔 업체 소식통에 따르면, 3월 초 스페인에서 황다랑어는 톤당 약 2,800 유로에 거래되었다.

이탈리아 기반의 소식통은 이탈리아 황다랑어 가격이 현재 톤당 2,900~2,950 유로 선이라고 말했다.

첫 번째 소식통은 황다랑어 가격이 근시일 내에 하락하진 않을 것이라고 예상했다. 해당 소식통에 따

면 참치 수요가 높은 여름철까지 시간이 남았기 때문에 황다랑어 수요가 아직까지 그리 높지 않았으나, 4~5월에 다시 수요가 회복되면서 가격이 오를 것이라고 예상했다.

두 번째 소식통은 “겨울과 연말연시까지 오랜 시장 휴면기가 끝난 후, 가공업체들이 원어를 찾기 시작하면서 가격 인상이 감지되는 것으로 보인다”라고 말했다.

* 기사 출처: UndercurrentNews, 2023년 3월 6일자



케냐, IOTC FAD 금지 이의 제출

타이유니온, 해당조치 비판

3월 2일 케냐가 부유형 FAD(dFAD) 제한 조치를 따르지 않겠다고 인도양참치위원회(IOTC)에 통보했다는 충격적인 소식이 전해졌다. 케냐는 인도양에서의 dFAD 감축을 지지하는 주요 국가 중 하나였다.

케냐는 IOTC가 발표한 회람문에서 2월의 투표가 “상업적 이해관계에 영향을 받은 일부 당사자들에 의해 강행되었다”며 5월 모리셔스에서 열리는 다음 회의에서 승인된 조치를 재고할 것을 회원국들에게 촉구했다.

케냐의 이의 제출은 오만과 코모로에 이은 세 번째이다. 채택된 조치에 대해 IOTC 회원국 1/3 이상이 이의를 제기하면 다른 회원국들도 해당 조치에 구속되지 않는다.

유럽 선단, 세이셸, 모리셔스는 금지 조치를 비판했지만 아직 공식적으로 이의를 제출하지는 않았다.

한편, 타이유니온은 IOTC의 이번 결정이 다른 지역

수산기구(RFMO)의 금지 조치와 맞물려 전 세계적인 참치 부족 사태를 초래할 것이라고 지적하며 비판했다. 타이유니온은 세이셸에 참치가공공장을 소유하고 있어 금지 조치의 영향을 받는다.

타이유니온의 글로벌 수산 지속가능성 책임자인 Tony Lazazzara는 “타이유니온은 dFAD의 한시적 금지를 지지하나 그 효과와 이행이 IOTC 과학위원회의 데이터에 의해 뒷받침되는 경우에만 가능하다”고 말했다.

글로벌 식품 대기업 Princes 그룹 또한 인도양참치위원회(IOTC)의 부유형 패드(dFAD) 금지 조치에 대해 “범위가 한정적이고 현 시점에서 어떠한 과학적 근거도 없다”라고 비판했다.

* 기사 출처: UndercurrentNews, 2023년 3월 8일자, Atuna 2월 22일, 27일자, 3월 3일, 6일자

中 Liancheng, 강화 플라스틱 어선 2척 매입

‘피버글래스(Fiberglass)’ 소재 사용

중국 Luen Thai 그룹 산하의 원양 기업 Liancheng 사(社)가 신규 피버글래스(Fiberglass) 강화 플라스틱 연승선 2척을 구매했다. 해당 선박에는 업그레이드된 정보 장치가 설치되었다. Liancheng사는 가다랑어, 황다랑어, 눈다랑어에 대한 해양관리협회의(MSC) 인증을 보유 중이다.

해당 선박에는 업그레이드된 정보 장치, 비디오 감시 장치, 선박 운항 자동화 장비, 선상 인터넷 디지털 시스템이 탑재되어 있어 선박과 육상 관제센터 간에 데이터를 실시간 공유할 수 있다. 두 선박 모두 남태

평양에서 조업을 위해 출항할 준비가 되어 있으나, 정확한 출항 일자는 공개되지 않았다.

‘피버글래스’는 유리 섬유(glass fiber)가 무작위로 배열된 직조 물질로 이루어진 강화 플라스틱 소재이다. 수지(resin)와 결합하면 피버글래스는 견고하고 내구성이 뛰어난 합성물을 형성한다. 이 소재로 만든 선박은 가볍고 유지보수가 덜 필요하고 파도와 악천후를 보다 안정적으로 운항하며 통과하는 것이 가능하다.

* 기사 출처: Atuna, 2023년 3월 6일자



EU 참치캔 구매액 최고치 기록, 28억 유로 가치 톤당 평균 가격 1/5 상승

유럽 무역상이나 소매상은 수요량을 맞추기 위해 2022년도 EU 외 판매자로부터 참치캔 구매량을 다시 한번 증가시켰다.

호황을 누리고 있는 EU 참치캔 수입 사업은 지난해 28억 유로(29억 5천만 달러)의 정점에 도달하였으며, 2021년보다 약간 증가한 54만 6,872톤이 선적, 톤당 평균 가격은 1/5 상승(867 유로)하였다.

EU는 참치캔을 외부 국가에서 더 많이 구매하였으며, 작년의 수입량은 4% 증가하여 유럽의 외부 시장 의존도가 강화되고 있다.

에콰도르의 공급업체들은 지난해 약 380개의 20피트 드라이 컨테이너를 더 공급하여 2020년도 수준 이상으로 사업을 성장시켰으며, 2022년도 4분기에만 1만 7,780톤을 공급하였다.

반면, 필리핀 수출업체는 1분기부터 3분기까지 실적이 좋지 않았으며, 지난 분기에도 판매량은 축소, 4분기에 겨우 8,388톤을 선적하여 전년 대비 총 10%의 손실을 보았다. 이러한 감소는 RD Company社가 소유한 한 Philbest 참치캔 공장(제너럴산토스시에 위치)의 원료 공급에 지장을 주어 2022년 후반에 가공 중단을 초래하였다.

세이셸에 위치한 태국 IOT 참치캔 공장은 2021년 대비 20피트 컨테이너 373개 분량을 적게 수출하면서 상당한 물량 감소가 발생하였다. 모든 판매자의 참치캔의 평균 가격은 최근 몇 년간 최고를 기록하였다. 2022년에는 톤당 5,683 유로로 지난해 대비 16% 증가하였으며 에콰도르에서 판매하는 제품보다 1,216 유로 더 비

쌌다.

코트디부아르에 위치한 두 참치캔 공장은 생산량이 약 40% 증가하였다. Airone Seafood社에서 생산한 상당량의 참치캔은 이탈리아 시장에 공급되었다. 또한 주로 이탈리아 시장에 납품하는 콜롬비아 공급자는 10,454톤의 수출을 달성하고 EU 시장의 점유율을 86% 증가시켰다.

EU 시장내 참치캔 수입은 6% 증가했지만 CFR 기준 가격은 2022년보다 톤당 870 유로 상승했다.

더 많은 물량이 네덜란드 운송 허브를 통과하며 네덜란드의 창고 작업은 증가하였다. 이탈리아 생산자들은 2천톤 이상을 더 공급하였고, 최고가의 Rio Mare 브랜드를 사용하여 CFR 가격 6,914 유로를 기록하였다.

전반적으로 EU 바이어들은 참치캔 시장의 성장에 따라 구매를 안팎으로 증가하였다. 하지만 이렇게 비싼 CFR 가격이 2023년도에도 계속 성장한다면 소비자에게 어떤 영향을 미칠지 지켜봐야 한다.



* 기사 출처: Intrafish, 2023년 3월 8일자



ISSF “세계 참치어획 85%, 건강한 자원에서 어획” 11% 남획, 4%는 중간 수준

국제수산물지속가능성재단(ISSF, International Sea food Sustainability Foundation)의 최근 자원 상태 보고서에서는 전세계 상업 참치 어획의 85%는 건강 수준 자원에서 어획된다고 한다.

또한 11%의 전체 참치 어획은 남획(overfished) 수준에서, 4%는 자원량의 중간 수준에서 어획된다고 한다.

보고서에 따르면, 지중해 날개다랑어, 인도양 눈다랑어는 남획 상태, 황다랑어는 남획에 취약한 상태이며, 태평양 참다랑어(bluefin)는 남획 상태이다.

그러나 2022년 11월 보고서와 비교하면 인도양 눈다랑어의 생물량(biomass) 등급이 녹색에서 주황색으로 하향되었으며, 인도양 날개다랑어의 어획 사망률이 주황색에서 녹색으로 상향되는 등 몇 가지 변화가 있음을 지적하고 있다.

23개 종의 자원량의 78%는 어획 사망률이 잘 관리되고 있고, 13%는 남획이 진행되고 있다. 산란 자원량(spawning biomass)의 경우, 23개 종의 61%가 자원

량의 건강한 단계(2022년 11월 65%에서 하락), 22%가 중간 단계, 17%가 과잉어획 단계에 있다.

2021년 전 세계적으로 잡힌 480만톤의 참치 중 56%는 가다랑어, 31%는 눈다랑어이다. 참다랑어는 전체에서 단 1%에 불과하다. 66%의 어획은 선망으로 어획되며, 나머지는 연승(9%), 자망(4%), 이외 기타 어법(14%)으로 어획된다.

관리 측면에서 2022년 11월 이후 주요 최신 내용은 WCPFC(중서부태평양수산위원회)에서 채택한 서부태평양수역 가다랑어에 대한 새로운 보존관리조치이다. 북부태평양 날개다랑어에 대한 WCPFC에서 채택한 부분 수확(harvest) 전략은 2022년 IATTC(전미열대참치위원회)에서 채택한 보존관리조치와 ICCAT(대서양참치보존위원회)에서 새로 채택한 보존관리조치와 일치한다.

* 출처: UndercurrentNews, 2023년 3월 10일자

스페인 연구소 “기후 변화, 참치 자원에 타격” 2050년까지 참치 생물량 및 크기 감소 추정

스페인 과학연구기관인 AZTI 최근 연구의 주요 결론은, 여러 시나리오를 통해 분석한 결과, 참치 자원의 잠재적 글로벌 생산성이 2050년까지 평균 36% 감소한다는 것이다. 또한 2050년까지 어체 크기는 15% 감소할 것으로 예상되며, 이는 수요, 가격, 수산업계 수익 측면에서 영향을 미칠 것으로 전망된다.

Maite Erauskin-Extramiana AZTI 수석연구원은

“태평양참다랑어만이 향후 약간의 증가세를 보일 것이며, 대서양참다랑어, 남방참다랑어, 황새치, 눈다랑어, 날개다랑어 등 5종은 각기 다른 비율로 생물량과 크기가 감소할 것으로 추정된다.”라고 말했다.

일부 참치류는 크기가 작아질 것으로 예상되나, 황다랑어, 가다랑어 등 크기가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는 어종도 있다.

* 기사 출처: UndercurrentNews, 2023년 2월 27일자



해바라기유·대두유 가격 하락세 지속

2월 미국산 대두유 톤당 1,155 달러...32% 하락

식물성 기름 가격이 2022년 4분기의 하락세를 지속하면서 글로벌 참치캔 업계에 희소식이 되고 있다. 다만 엑스트라 버진 오일은 여전히 고가를 유지 중이다.

글로벌 식량 가격은 2022년 중반의 최고치와는 거리가 먼 중간 수준을 유지 중이다. 지난 3월 2일 UN식량농업기구 식량가격지수(FFPI)는 2023년 2월 평균 129.8포인트로, 1월 대비 0.6% 하락했다. 이는 식물성 기름 및 유제품의 글로벌 가격의 하락에 따른 것이다. 이러한 하락세는 2022년 3월 이후 11개월 연속으로 이어지고 있다.

상품 그래프에 따르면, 식물성 기름류 가격은 지난 4월 이후 급격히 하락했음에도 불구하고 전년도 대부분의 기간 동안 타 식품군에 비해 매우 높은 가격대를 유지해 왔다. 식물성 기름류의 FFPI는 2월 평균 135.9포인트로 1월 대비 3.2% 하락했으며 2021년 초 이후 최저 수준을 기록했다. 대두유, 팜유, 해바라기유 전반의

세계적 가격 하락이 지수 약세를 주도했다. 세계 대두유 가격은 주요 수입국의 구매 감소 및 남미 생산량 증가 전망에 힘입어 하락세를 이어갔다.

EU 데이터에 따르면 2월 미국산 대두유 가격은 톤당 1,155 달러로, 2022년 동월 대비 32% 가까이 하락했다.

2월 22일 최신 데이터에 따르면, 세계 최대 생산국인 우크라이나의 해바라기유 EU 수출가격은 톤당 약 1,005 달러로, 전년 대비 31% 하락했다. 네덜란드의 한 브로커에 따르면 작년 2월 해당 품목은 톤당 1,450~1,500 유로 선에서 거래되었다.

엑스트라 버진 오일을 사용하는 유럽 가공업체는 여전히 높은 가격에 직면해 있다. 국제올리브협회 최신 수치에 따르면 주요 판매지인 이탈리아 Bari와 스페인 Jaen의 가격은 각각 톤당 약 6,471 달러, 약 5,275 달러를 기록 중이다.

* 기사 출처: Atuna, 2023년 3월 3일자

中-인도네시아, 참치 산업 MoU 체결

인도네시아 조업 기지 건설 등

인도네시아와 중국은 2021년 체결된 양국의 산업개발협약에 따른 양해각서(MoU)에 조인했다. “Two Countries, Twins Parks”라는 명칭의 해당 MoU는 자원 교환, 가공 협업, 시장정보 교환 등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 양국은 계획의 일환으로 참치 산업 확대안을 염두에 두고 있다.

중국 Shengtian 식품회사는 인도네시아 최대 재

벌 중 하나인 Salim 그룹과 협력해 연간 약 50만톤의 수산물을 생산할 수 있는 10개의 조업 기지를 인도네시아에 건설할 계획이다.

중국 Fuqing시 관계자들은 인도네시아에서 약 31억 3,000만 달러를 투자하는 안에 서명할 예정이다.

* 기사 출처: Atuna, 2023년 2월 16일자



미국 2022년 참치캔 수입 20% 이상 증가

2022년 14만 1,484톤 수입

미국의 2022년 참치캔 수입량은 전년 대비 25% 증가했다. 이는 코로나19 사재기가 있었던 2020년을 제외하면 11년만의 최고 수입량이다.

2022년 미국의 참치캔 수입량은 14만 1,484톤으로, 2012년 이전 수준으로 회복되었다. 2010년 미국의 참치캔 수입량은 15만 9,000톤을 기록했다. 2012년 이후 약 10여 년 동안 연간 수입량은 10만~12만톤 수준을 기록하다가 2016년 9만 7,401톤으로 10만톤 선이 붕괴되었다.

연간 평균 수입 가격은 2017년 톤당 4,092 달러를 기록하며 처음으로 4,000 달러 선을 넘어섰다. 이후 평균 수입 가격은 2022년 톤당 4,694 달러로 최고 기록을 경신했다.

수입 비중 1위를 차지한 태국산의 2022년 수입량은

8만 150톤으로 전년 대비 23% 증가했고, 평균 수입 가격은 톤당 4,637 달러로 약 2% 상승했다. 2, 3위인 멕시코산(1만 7,630톤)과 베트남(1만 3,799톤)산 수입량도 증가했으나 태국산과는 여전히 차이가 컸다. 지난 수년간 멕시코산의 경쟁력이 매우 높았으며 이는 평균 수입 가격이 톤당 3,723 달러로 상승한 2022년에도 마찬가지였다.

베트남산의 톤당 평균 수입가격은 전년 대비 116 달러 하락했으나, 여전히 국가별 기준 최고 가격인 톤당 6,244 달러를 기록했다.

주목할 점은 에콰도르산 수입량이 전년 대비 161%나 증가한 8,661톤을 기록했고, 톤당 가격 또한 경쟁력 있는 수준인 톤당 4,233 달러였다는 것이다.

* 기사 출처: Atuna, 2023년 2월 22일자

스페인, 참치캔 부문 혁신 기술 개발 중

공장서 참치 로인 수분·지방 데이터 즉시 수집 가능

스페인 참치가공협회(Anfaco-Cecopesca)의 기술센터가 타 참치 기업의 지원을 받아 신기술을 개발 중이다.

600만 유로의 예산을 통해 최근 개발된 신기술은 참치 자숙로인(cooked tuna)의 수분과 지방 함량을 측정하여 즉시 알 수 있게 해 주는 기술로, 참치캔 가공 부문에 혁신을 가져올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

참치캔 공장서 가공되는 대량의 참치 자숙로인은 많은 수분과 지방을 함유하고 있기 때문에 최종 제품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 현재 개발 중인 신기술

은 빠른 속도의 분류 기술로 참치의 품질 조절을 가능하게 하며, 이를 통해 생산 부서가 최종 제품에 반영될 수 있도록 더 빠른 결정을 내리도록 돕는다.

현재 참치의 수분·지방 함유량 통제 및 분석은 샘플을 받고 24시간 내로 결과가 나오는 실험실에서 이루어지고 있다. 발전된 솔루션을 통해, 수분과 지방 정보를 약 0.5~1%의 오차율로 수집할 수 있으며, 오메가-3 등 인체에 유익한 지방에 관한 데이터 수집에도 도움을 준다.

* 기사 출처: Atuna, 2023년 2월 16일자



남미·페루 대왕오징어 조업 회복

日 대왕오징어 가격 하락세

남미·페루 연안의 아메리카대왕오징어 조업 상황이 회복되면서, 일본에서 고가를 기록한 원료 가격이 진정 국면에 접어든 것으로 전해졌다. 다만 중국을 비롯한 타국의 수요 증가도 주시해야 하므로 오징어 원료 매입 전망은 아직 예측이 어려운 상황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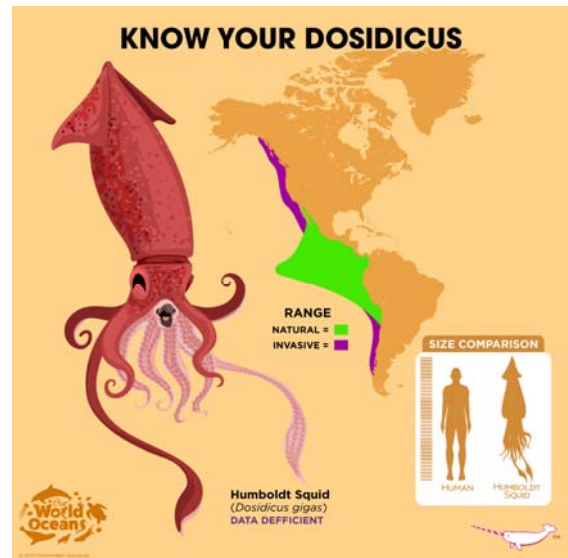
대왕오징어 주요 산지인 페루의 어획량은 2021년 어획량인 47만톤의 절반에 그칠 것이라는 비관적 전망까지 나올 정도였다. 그러나 현지 가공업자 및 상사 관계자에 따르면, 작년 11월부터 어획이 호전되어 최종적으로는 연간 30만톤 후반에서 40만톤 전후까지 회복할 것으로 추정된다. 페루 외에는 칠레 8~9만톤, 공해 조업 중국 선단이 불명확하나 30~35만톤을 어획할 것으로 추정된다.

페루 어획량 회복에 더해, 일본이나 유럽의 원료 매입 재개, 중국 제로코로나 정책 하 수요 감소 등으로 인해 가격은 하락했다. 일본 상사 관계자에 따르면 한때 일본 국내 가격은 필렛 kg당 400 엔대 후반, 귀(耳) 300 엔대 후반의 고가 추세였으나 12월 들어 각각 20% 가량 하락했다. 게다가 올해 1, 2월 들어 추가로 가격이 하락하면서, 일본에서는 ‘지금이 매입 시기’라며 원료 매입에 나서는 움직임도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다만 페루의 올해 어장이 연안에서 멀리 형성되어 신선도 문제가 생길 수 있다는 점, 여기에 한국대만태국 뿐만 아니라 제로코로나 정책 종료로 인해 중국의 수요가 회복될 수도 있다는 점 등으로 인해 가격이 반등하고 오징어의 일본 공급이 감소할 수 있다는 관측도 나오고 있다.

한편, 아르헨티나 일렉스오징어는 어업 부진이 계속 되는 것으로 전해졌다. 공해에서 조업하는 중국 선단의 어획량이 저조한 것으로 전해졌고, 아르헨티나 EEZ 내에서 조업하는 자국 선단의 어획량 또한 2월부터 감소한 것으로 알려졌다.

일본 상사 관계자는 아직 조업이 시작한 지 얼마 되지 않았기 때문에 5월까지의 어획 동향을 주시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 기사 출처: 일간수산경제신문, 2023년 2월 22일자



전세계 오징어채낚기 어업, 4년간 68% 증가

오징어채낚기 어선 86%가 미관리 수역 조업

미국 시각으로 3월 10일 미국 과학지 <Science Advances>에 게재된 논문에 따르면, 2017년~2020년 인공위성 영상 또는 AIS에 따른 선박추적데이터를 분석한 결과, 오징어채낚기 어선의 세계 미관리 수역 조업은 확대 추세인 것으로 나타났다. 미국 캘리포니아 대학을 중심으로 글로벌피싱위치(GFW), 호주 국립해양자원안보센터 등, 프랑스 수산교육연구기구 등이 연구에 참여하였다.

논문에 따르면 오징어 어선의 86%가 EEZ 외 수역 또는 지역수산관리기구(RFMO)에 관리되지 않는 바다에서 조업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조사 대상인 2017년부터 2020년까지 4년간 어획노력량(1일당 어업활동)은 1일당 14만 9,000척에서 25만 1,000톤으로, 4년간 68% 증가했으며, 이 중 61~63%가 AIS를 탑재하지 않은 선박에 의해 행해진 것으로 드러났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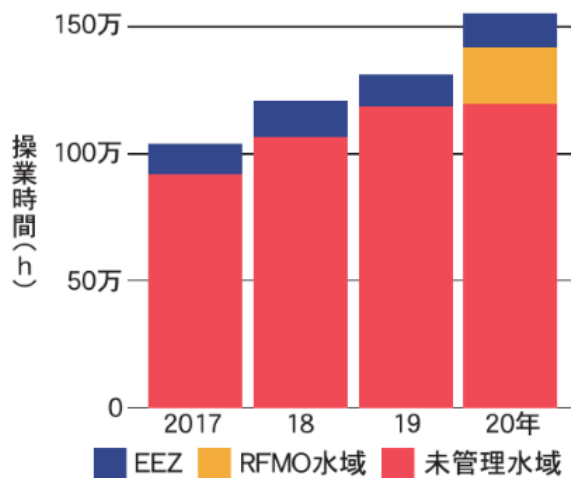
수역별로는 특히 북서인도양, 남서태평양에서 어획 범위가 증가하고 있다. 북서인도양은 AIS에 탐지되는 어선의 수보다도 야간의 빛에 의해 검출되는 어선의 수가 많아, AIS 미탑재 조업선의 수가 많은 것으로 판명되었다.

불법·비보고·비규제(IUU) 어업에 대해 국제적인 관심이 확대되는 반면, 미관리 수역 조업에 주목하는 연구는 지금까지 없었다. 관리되지 않는 수역의 상당수가 EEZ와 인접하여 동일한 자원을 어획 대상으로 하는 상황이기 때문에, 자원에 미칠 악영향이 우려되고 있다. 또한 이러한 선박의 상당수가 해상에서 연료 보급이나 어획물 전재를 실시함으로써 수개월에서 수년까지 해

상에 체재한다. 이로 인하여 기항지 관리도 피하고 인권, 노동 문제 발생 가능성도 높아진다.

해당 연구의 대표자인 Katherine L. Seto 캘리포니아대 교수는 “오징어채낚기 어업자는 관리조치가 포괄적이지 않다는 점을 이용하여 자원을 최대한도까지 어획하고 있을 가능성이 발견되었다”고 지적하였다. GFW의 Nate Miller 연구원은 포괄적 데이터 공유 협정의 중요성을, 호주 Wollongong대학의 Quentin Hanich 박사는 미관리 수역 어업 활동에 대한 긴급 대응의 필요성을 지적하였다.

イカ釣り漁船の年別操業実態(2017~20年)



(오징어채낚기 어선 연간 조업시간 그래프 - '17~'20년)

(청색: EEZ / 황색: RFMO 수역 / 적색: 미관리 수역)

* 기사 출처: 일간수산경제신문, 2023년 2월 22일자



러, 극동지역 명태, 청어, 대구 어획 성공적

98척의 명태 트롤선 조업 중

2023년 3월 7일까지 러시아 어업인은 극동 수역에서 62만 톤의 명태(전년 같은 기간 대비 16% 증가)와 77만 톤의 청어(전년 같은 기간 대비 6% 증가)를 어획하였다. 극동지역 대구의 어획량은 30만 7,000톤을 어획하여 지난 해 같은 기간 대비 4% 증가하였다. 오호츠크해와 베링해에서는 1월 1일부터 A시즌(겨울~봄)이 이어지고 있다.

지난 주간 러시아 선단 조업의 모든 조업 수역의 기상은 어획에 좋은 영향을 제공하였다. 오호츠크수역에서는 98척의 트롤조업선과 1척의 저인망 조업선이 명태와 청어를 조업하고 있다. 10척의 조업선과 4척의 모선이 명태를 부수어획으로 하는 저인망 조업을 하고 있다. 주기적으로 4척 미만의 선박이 북쿠릴 수역 밖으로 명태를

부수어획으로 하는 저층 조업을 하고 있다.

오호츠크 조업수역에서는 40명 이상의 러연방 보안국 국경수비대 직원과 25척의 운반선(모든 운반은 해상 검사관에 의해 제공)이 있으며, 추가로 8척의 운반선이 접근 중이며 지난주 10척의 운반선은 하역을 위해 항구로 이동하였다.

연해주 항에 위치한 냉동창고의 평균 적재 수준은 33%이다. 명태 39,000톤과 청어 65,000톤을 포함한 5만톤 이상의 수산물을 실은 27척의 선박이 항구로 향하고 있다. 신선한 어획물로 만든 수산제품은 보관 지체 없이 러시아 각 지역 및 태평양 국가로 배송된다.

* 출처: 러시아연방수산청, 2023년 3월 7일자

올해 러시아 누적 어획량 96만톤

12월 중순부터 가격 유지 중

러시아연방 어업 및 통신 모니터링시스템센터측에 따르면, 2023년 3월 8일자 누적 어획량은 96만 4,700톤의 어획을 달성하여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약 10%의 증가하였다.

극동수역 어획량은 77만 5,500톤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13%의 상승을 기록하였다. 명태는 61만 8,800톤을 어획하여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8만 6,800톤을 더 어획하였으며, 대구는 3만 700톤, 청어는 7만 7,300톤을 각각 어획하였다.

북쪽 수역 어획량은 8만 4,000톤 어획하였으며 이중 대구 4만 5,600톤을 어획하였다.

서쪽 수역 어획량은 13.6% 증가하여 약 2만톤을 어

획하였다. 이중 청어류(Sprattus)는 1만 3,500톤을 어획하여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1,400톤을 더 어획하였다. 볼가-카스피해수역의 어획량은 18% 증가하여 1만 7,000톤을 어획하였다. 이중 청어류(Sprat)는 1만 6,400톤을 어획하여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3,800톤을 더 어획하였다. 아조프-흑해수역의 어획량은 7,800톤을 어획하였다.

또한, 외국 배타적 경제수역, 공해 및 국제수산기구 협약수역에서 러시아 조업선단은 5만 7,100톤을 어획하였다.

* 출처: 러시아연방수산청, 2023년 3월 9일자



러-중 어업협상 재개

COVID-19사태 이후 첫 번째 대면 협상

러시아 대표단은 중국 측의 초청에 따라 주하이시(중국 광둥성)에서 수산분야 협력을 위한 제31차 러-중어업위원회를 개최하였다. 어업위원회는 소련 정부와 중화인민공화국 정부간 어업분야 협력을 위해 1988년 10월 4일자로 설립되었다.

중국측 수석 대표단은 어업분야에서 러-중간 협의가 COVID-19 사태로 인한 방문 제한 이후 첫 번째 외국 대표단 방문임을 강조하였다.

양측은 아무르강과 우수리강 경계수역에서 철갑상어 치어를 공동 방류, 어업 규제 및 접경 지역의 생물 자원

연구를 위한 과학 데이터 교환 등 자원량 회복을 위한 철갑상어와 연어류 공동 보호를 검토 예정이다.

2023년은 러-중간 어업 분야 협력을 시작한 지 35주년이 되는 해이다.

양국간 협력을 통해 획득한 결과는 장기적 어업 활동 계획 및 어족 자원 증가를 가져올 수 있다. 전통적인 양국 전문가 간의 긴밀한 협력은 회기간에도 지속 예정이다.

2023년 1월부터 2월간 러-중간 무역액 총액은 지난해 대비 25.9% 증가하였다.

* 출처: 러시아연방수산청, 2023년 3월 7일자

디지털화 : 극동지역 어업허가장 온라인 발급

조업일지를 종이를 사용하는 경우 종이로 된 허가장 발급

연방수산청 2023년 2월 연해주 지부에서는 연해주와 극동 지역에서의 해양생물자원 조업허가장 발급에 대한 국가 서비스 제공에 관한 내용을 알렸다.

2023년 2월 연해주 지부는 131건의 해양생물자원 조업허가장을 발급, 527건의 변경 허가를 처리하였다.

통합 국가 서비스 포털을 통해 허가 발급 검토 기간은 전자 신청은 평균 5.5 근무일, 서류 신청은 평균 7.5 근무일이 소요된다. 또한 이미 발급된 허가장에 대한 수정 처리시에는 전자 신청은 평균 2.5 근무일, 서류 신청은 평균 3 근무일이 소요된다.

2023년 3월 1일 이전까지 법률상 허가증 발급 기한은 15 근무일 미만, 이미 발급된 허가장에 대한 수정 처리는 5 근무일 미만으로 설정되었다.

3월 1일자로 러시아 정부 법령 2066호「해양생물자원의 조업(어획) 허가 신청, 발급, 등록, 유효 정지 및 허가 취소와 이에 대한 변경」가 발효되었다. 3월 1일 이전까지의 신청은 서류 및 전자 형태로 통합 국가 서비스 포털을 통해 신청되었으며, 허가장 발급은 종이 형태로 제공되었다.

2023년 3월부터 신청서는 종이 혹은 전자 형태로 통합 국가 서비스 포털을 통하여 신청할 수 있으나, 모든 허가장 발급은 국가 서비스 포털을 통하여 전자 형태로 발급된다.

다만, 조업일지를 종이로 작성하는 경우 신청인의 요청에 따라 종이로 된 허가증 발급이 가능하다.

* 출처: 러시아연방수산청, 2023년 3월 10일자



러시아산 명태 H&G 가격 kg당 약 78 루블

12월 중순부터 가격 유지 중

러시아 연방수산청에 따르면 2023년 1월 1일부터 2월 21일까지의 자국 어획량 누계는 전년 동기 대비 약 6% 증가한 70만 2,400톤이다. 극동 수역은 9% 증가한 57만 5,800톤이며, 이 중 명태는 13% 증가한 45만 2,100톤, 청어는 9% 증가한 6만 5,900톤이다.

극동 명태 어장별로는 오호츠크해 어획량이 8% 증가한 38만 2,600톤이며, 이 중 북오호츠크해 어획량이 36% 증가한 9만톤, 동사할린 어획량이 14.6배 증가한

1만 1,800톤이다.

극동 수역 중 오호츠크해 이외 수역의 경우, 남쿠릴 어획량은 15% 증가한 1만 3,800톤을 기록했다. 동캄차카 어획량은 20% 증가한 1만 8,700톤이며, 이 중 페트로파블로프스크·코만도르스카야 어획량이 90% 증가한 1만 4,500톤을 기록했다.

* 기사 출처: 미나토신문, 2023년 2월 27일자



日 2023년 명태 TAC 25만 8,300톤

전년 대비 3% 증가 승인

일본 수산청은 지난 2월 13일 열린 수산정책심의회에서 2023년 어기(2023년 4월~2024년 3월) 명태 4계군의 TAC안을 총 25만 8,300톤(전년 대비 3% 증가)으로 승인했다. 2022년 12월 삿포로에서 개최된 의견교환회에서 수산청이 제안한 수치가 그대로 승인되었다.

명태의 경우, TAC 외에 태평양계군에서 대상 수역 밖의 것으로 추정되는 자원의 대량 내유가 발생할 경우, TAC에 1만톤을 추가하는 '대량내유 룰(大量来遊

ルール)'이 계속해서 승인되었다. 동해 북부 계군은 전년도 어기의 TAC 미아용분을 TAC의 최대 5%까지 다음 년도 어기로 이월할 수 있도록 하는 조치를 계속하기로 결정했다.

최근 어획 호조가 계속되고 있는 오호츠크해 계군의 경우, 2022년도 어기 TAC에 5,000톤이 추가된 6만 3,000톤으로 승인되었다.

* 기사 출처: 미나토신문, 2023년 2월 17일자



러시아 2022년 명태 제품 생산량 8% 증가 수입 급감으로 인해 자국산 전환

러시아 명태어업자협회(ADM)의 28일 발표에 따르면 러시아의 2022년 냉동 필렛, 민스, 연육 등 명태 제품의 생산량은 전년 대비 8% 증가한 98만 7,000톤으로 증가하였다. 한편, 해당 제품군의 수입량은 약 90% 감소하여 러시아 내에서 유통되는 명태 제품은 거의 전량이 자국산으로 전환되었다.

ADM에 따르면, 러시아산 명태 제품의 자국 내 공급량은 연간 11만 5,000톤에서 23만 2,000톤이었다. 2022년의 러시아 자국 내 공급량은 18만 3,000톤이다. 이는 러시아 국민 1인당 2.6kg 수준의 소비량으로, 러시아 수

산물 소비량의 약 12%를 차지한다.

한편, 러시아의 2022년 명태 제품 수입량은 158톤으로 전년 대비 91% 급감하였다. 이 중 필렛은 134톤, 연육은 24톤을 기록하였다.

ADM은 러시아가 2014년 명태 제품 2만톤 이상을 수입하였고, 국내시장의 13%가 수입 제품이었으나, 현재 수입 명태 제품의 비중은 1% 미만이며 자국산으로 거의 전환되었다고 분석하였다.

* 출처: 미나토신문, 2023년 3월 8일자

英 명태 소매 판매량, 사상 최초로 대구 추월 2024년 연어 판매량 추월 가능성 존재

영국 최대 흰살생선 가공업체인 Young's Seafood의 모기업 Sofina의 구매부장 Andrew Allchurch에 따르면, 알래스카명태의 영국 소매 판매량이 대구를 추월하였고 2024년에는 연어 판매량을 추월할 수도 있다고 하였다.

Allchurch 부장의 매출 데이터에 따르면, 영국 구매자들은 2022년부터 2023년 1월까지 한 해 동안 알래스카명태를 5만 6,199톤 구매한 반면, 대구는 5만 5,400톤을 구매하였다.

Allchurch 부장은 인플레이션을 이러한 순위 역전의 원인으로 지목했다. 알래스카명태는 다른 신선·냉

동 수산물 부문과 달리 판매량이 증가하였다. 그 이유는 명태가 미국에서는 피시스틱(fish stick)과 같은 비용 절감 품목으로 인식되고, 유럽에서는 대구와 같은 흰살생선을 대체하는 종으로 인식되기 때문이다.

연어 판매량은 5만 8,200톤으로 여전히 명태보다 많다. 명태와 연어는 지난 5년간 냉동·냉장 수산물 판매량 상위 1, 2위를 다투고 있다.

Allchurch 부장은 “아마 내년에는 명태가 1위 어종이 될 것”이라고 예상하였다.

* 출처: Intrafish, 2023년 3월 8일자



BBNJ 협정안 협상 타결

키리바시·하와이 연승선단 등 참치업계 영향 우려

20여 년에 걸친 협상 끝에 공해 및 심해저 등 국가관할권 이원지역의 해양생물다양성(BBNJ: Biodiversity Beyond National Jurisdiction) 보전 및 지속가능이용을 위한 협정안이 타결되었다.

해당 협정은 바다 표면적의 약 2/3를 차지하는 공해 지역에 대한 환경 및 해양생물다양성 보호를 목적으로 하는 최초의 지구적 다자조약이다. 주요 내용으로는 △공해 및 심해저에 해양보호구역(MPA: Marine Protected Area) 등 구역기반관리수단을 설정하는 기준과 절차를 마련하고, 공해 및 심해저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활동에 대한 환경영향평가의 실시요건 및 상세 절차 규정, △공해 및 심해저에서 채집한 해양유전자원 및 그로부터 획득한 디지털염기서열정보(DSI: Digital Sequence Information)에 대한 접근과 이용 내역을

투명하게 공유하고, 상업적 이용으로부터 발생하는 이익을 공유하기 위한 다자적 메커니즘 수립 등이 있다.

조약의 목표는 2023년까지 해양 면적의 30%(연안, 내륙 수역 포함)를 보호한다는 것이다. 이로 인해 상업적 어업이나 석유 시추 등의 활동이 금지되거나 제한될 수 있으며, 더 많은 MPA가 설정될 것으로 전망된다.

참치 업계는 지난 수년간 MPA에 대해 우려를 표명해 왔다. 하와이 연승선단은 미국 정부에 태평양에 위치한 2개의 MPA가 업계에 경제적 손실을 초래한다는 내용의 서한을 지속적으로 보내 왔다.

지난 11월 키리바시는 피닉스제도보호구역(PIPA)의 어업 폐쇄를 해제한 바 있다.

* 기사 출처: Atuna, 2023년 3월 7일자

가나, 모든 상업용 어선에 EMS 사용 의무화

2025년까지 상업적 어업 100% 투명성 달성 약속

가나가 2025년까지 자국 상업적 어업을 대상으로 100% 투명성을 달성하겠다는 약속을 지난 3월 2일 발표했다.

가나는 어선에 비디오 카메라, 원격 센서, GPS, 전자모니터링시스템 하드 드라이브를 설치해 활동을 효과적으로 모니터링하고 중요 데이터를 수집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미국 국제개발처(USAID, 미국의 군사적 활동

을 제외한 대부분의 해외 원조를 담당하는 조직)의 지원을 받는 캠페인인 Feed the Future Ghana Fisheries Recovery Activity는 올해부터 가나 수산양식개발부(MOFAD)와 협력해 올해부터 산업용 트롤선을 대상으로 EMS 시험 운용에 들어갈 예정이라고 밝혔다.

* 기사 출처: SeafoodSource, 2023년 3월 6일자



핀란드 기업, 어류 부산물 식품 활용법 도입

뼈·껍질·비늘 식재료 재활용...일반 제품보다 영양가 높아

닭뼈와 단단한 조직을 재활용하는 기술을 선보인 핀란드 식품 테크놀로지 기업 SuperGround사(社)가 1년 만에 해당 기술을 어류 부산물로 확대했다.

SuperGround사의 특허 공정은 이전에는 사용할 수 없었던 뼈·껍질·비늘 및 기타 단단한 조직 등의 어류 부산물을 연화·열처리·분쇄하여 피시 스틱, 피시 너겟, 스프 등의 생산에 사용 가능한 두꺼운 반죽으로 재생산한다.

SuperGround사의 설립자인 Santtu Vekkel이 수석개발자는 “우리는 최초로 내장을 제외한 모든 부위를 소비자 친화적 어류 제품 생산에 사용할 수 있게 했다”고 말했다. Vekkel이 수석개발자는 어류 뼈가 닭뼈와 비슷하다는 점에서 착안해 기술을 구현할 새 방법을 찾게 되었다고 말했다.

Vekkel이 수석개발자에 따르면 반죽으로 처리될 때, 단단한 조직의 인산칼슘 구조에서 콜라겐이 비타민, 미네랄과 함께 방출된다. 이 반죽을 제품에 첨가하면 일반 생선 필렛에 비해 단백질, 비타민, 칼슘, 오메가-3 지방산 함유량이 늘어나 영양가가 높아진다.

개발된 기계는 기본적으로 시간당 500~650kg, 연간 최대 150만 kg의 반죽을 생산할 수 있으며, 통합 가공 라인에 여러 대의 기계를 배치할 수 있다.

Vekkel이 수석개발자는 “이 공정을 통해 어종에 따라 이전 대비 20~60% 더 많은 식량을 어류로부터 얻을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며, “특히 향후 10년 간 고소득~중상위 소득 국가를 중심으로 수산물 수요 증가가 예상되기 때문에 이는 매우 중요하다.”라고 말했다.

* 기사 출처: SeafoodSource, 2023년 2월 27일자

中 원양선단 2022년 어획량 225만톤

중국 해면어업 생산량의 약 30%

중국 농업농촌부(MoA)에 따르면, 공해상에서 주로 조업하는 중국 원양선단은 2022년 총 225만톤을 어획했다. 이는 2025년 목표 연간 어획량인 230만톤에 약간 못 미치는 수준이다. 중국 지역 언론 보도에 따르면 2022년의 원양 어획량은 중국 전체 해면어업 생산량의 약 30%에 해당한다.

MoA에 따르면 2022년의 어업은 주로 공해에서 이루어졌으며, 중국과 어업 협정을 체결한 30

개 이상 국가의 EEZ에서도 이루어졌다.

중국 원양 선사는 거액의 보조금을 지급받는 것으로 알려져 있으나, 베이징 그린피스의 수석 해양운동가 Zhou Wei에 따르면, 중국이 2022년 지급 보조금에 대한 자세한 정보는 일반 공개되지 않으며, 원양 어업과 관련된 포괄적이고 정기적인 데이터 공개는 없다.

* 기사 출처: UndercurrentNews, 2023년 2월 24일자



美 2022년 수산물 수입 기록 경신

약 304억 달러 수입

UndercurrentNews가 미국 해양대기청(NOAA) 데이터를 분석한 내용에 따르면, 2022년 미국의 수산물 수입량은 336만 2,079톤(전년 대비 2% 증가), 수입액은 약 304억 달러(전년 대비 7% 증가)로, 수입량과 수입액 모두 역대 최고치를 기록했다.

반면 미국의 수산물 수출량은 119만 5,949톤(7% 감소), 수입액 52억 달러(3% 감소)로, 모두 전년 대비 감소했다.

2022년 미국의 수산물 수출액은 수입액의 17% 수준으로 급감했다. 이는 지난 12년간 가장 낮은 수준이다.

미국 수산물 소비촉진그룹 Seafood Nutrition Partnership의 CEO Linda Lai Cornish는 수출 감소는 미국인들이 수산물의 조리법을 익히고 이점을 알게 되면서 미국 내 소비가 증가했기 때문이라고 분석했다.

NOAA 데이터에 따르면 수입 수산물 중 최대 비중 1, 2위는 새우, 연어이다. 팡가시우스의 수입 비중은

11위에 그쳤으나, 2022년에 수입액이 가장 큰 품목으로 증가한 품목 중 하나가 되었다.

중국은 미-중 무역분쟁에도 불구하고 미국에 가장 많은 수산물을 수출한 국가 1위였다. 중국이 2022년 미국에 수출한 수산물의 양은 38만 2,840톤(5% 감소), 수출액은 19억 달러(14% 증가)이다. 데이터에 따르면 2018년 9월부터 2022년 9월까지 미국이 수입한 중국산 수산물에 10억 달러 이상의 관세가 부과되었다.

캐나다, 칠레, 인도가 중국 다음으로 미국에 많은 수산물을 수출한 국가로 이름을 올렸다. 러시아는 제재 조치로 인해 미국에 수출한 수산물의 양이 52%, 수출액이 23%나 감소했다.

대륙 기준으로, 아시아는 2022년 동안 미국에 수출량 167만 5,204톤, 수출액 128억 달러를 기록했다.

* 기사 출처: UndercurrentNews, 2023년 2월 17일자

나미비아 정부, 민대구 경매로 740만 달러 확보

민대구 총 1만 2,300톤 경매

Namibia Economist에 따르면, 나미비아 정부는 1만 2,300톤의 민대구(hake) 쿼터 경매를 통해 1억 1,010만 나미비아달러(약 740만 달러)의 수입을 확보했다.

정부 측은 신선 대구 쿼터 평균가격이 7,000 나미비아달러에서 8,592.55 나미비아달러로 상승

했고, 냉동의 경우 9,000 나미비아달러에서 1만 207.41 나미비아달러로 상승했다는 점을 감안하면 이번 민대구 경매는 성공적이라고 평가했다.

나미비아는 정부지출 자금 지원을 위해 수산물 경매 쿼터를 조직해 왔다

* 기사 출처: Intrafish, 2023년 2월 3일자



美 FDA, 수산물 데이터 완전 이력추적 요구

식품 제조·가공·포장·보관 업체 대상... '26년 1월까지

미국 수산물의 데이터 완전 이력추적을 요구하는 새 연방 규정 준수에 3년의 준비기간이 주어졌다.

미국 식품의약국(FDA)이 지난 1월 제정한 식품 추적 최종규칙에 따르면, 식중독 발생을 예방하기 위해 “식품을 제조·가공·포장·보관하는 자에 대한 추가 기록 보관 요건”이 규정되어 있다. 규정 준수 기한은 2026년 1월 20일까지이다.

수산물 업계 추적관행을 위한 B2B 플랫폼인 GDST의 전무 Gregory Brown에 따르면, 식품이력 추적목록(FTL, Food Traceability List)는 매우 방대하며, 업계의 80%를 포함할 가능성이 크다.

새 규정의 기본 아이디어는 FDA나 다른 보건 기관이 식품 공급 과정의 모든 디지털화된 기록을 통해

오염된 식품의 오염원을 즉시 추적할 수 있는 것이라고 Brown은 설명하였다.

명시된 규제 내용에 따르면, 이 규정의 핵심은 FTL에서 식품을 제조·가공·포장·보관하는 규정의 적용을 받는 자가 특정 중요추적이벤트(CTE) 관련 핵심 데이터요소(KDE)가 포함된 기록을 유지하고, 24시간 이내 또는 FDA가 동의한 합리적 시간 내로 FDA에 제공해야 하는 것이다.

이는 GDST 및 타 지속가능성 관련 NGO가 추진해 온 기본적 요구사항과 동일하나, FDA가 이를 요구하는 목적은 발병 예방이라는 점에서 차이가 있다.

* 출처: UndercurrentNews, 2023년 3월 9일자

FMI “美 2023년 수산물 소매 매출 회복세 예상”

현 시점에서 급성장 멈췄으나 다시 성장 전망

미국 식품산업협회(FMI)에서 발표하는, 미국 슈퍼마켓 및 기타 소매점의 수산물 매출실적에 관한 가장 포괄적인 연례 분석 보고서인 “Power of Seafood 2023”에 따르면, 미국 소매점의 수산물 매출 급성장은 적어도 현 시점에서는 끝났으나, 이후에 다시 성장세를 되찾을 것으로 예상된다.

보고서에 따르면 2022년 소매업체의 수산물 매출은 전년 대비 확연히 감소했고, 판매 단위 기준으로 측정했을 때 팬데믹 이전 수준으로 돌아갔다. 2022년 판매 단위당 매출은 2021년 대비 거의 10% 감소했고, 팬데믹 이전 수준 대비 2.2%

증가에 그쳤다.

FMI 신선식품 담당 부사장 Rick Stein은 인플레이션과 소비자들의 보다 저렴한 단백질 선호 현상 등으로 매출이 감소했으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매출 상승세가 다시 돌아올 것이라 생각한다고 말했다. Stein 부사장은 매출 감소의 원인은 인플레이션이기 때문에, 일단 한 번 수산물에 익숙해진 소비자들은 식비에 여유가 생긴다면 다시 수산물을 소비하게 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 기사 출처: Intrafish, 2023년 3월 6일자



바다에서

이 상 강

바다에서 무얼 찾으시나요?
어부들은 조개와 미를 잡고,
나는 내 마음을 잡으려 왔습니다.

바다에서 무얼 바랄까요?
어부들은 물고기를 바랍니다.
나는 내 꿈을 바라보고 있습니다.

바다에서 무얼 바라보시나요?
어부들은 작은 돈을 바라고,
나는 세상의 건강한 미래를 바라고 있습니다.





2월 오징어 국내 동향

연근해 어한기로 생산 저조, 소비자가격은 상승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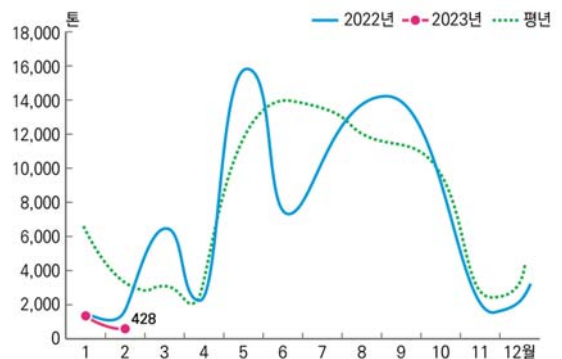
□ 생산동향(2월 오징어 생산량, 연근해 어한기로 전월 대비 감소)

2월 오징어 생산량은 전월 대비 68.5% 감소한 428톤이었으며, 작년 및 평년 동월에 비해서도 각각 73.9%, 86.8% 적었다.

2월 생산량은 전월과 마찬가지로 전량 연근해산이었다.

국립수산물품질관리원*에 따르면 동해남부와 남해동부 해역에서 어장이 형성되었으나 어군밀도가 낮았다. 또한 동해 북측 수역의 고수온 영향으로 회유가 지연되고 어군이 분산되어 평년 대비 부진한 어황이 지속되었다.

지역별 위판량을 살펴보면, 후포수협(42톤), 강릉수협(12톤) 등 동해안지역으로 227톤, 통영수협(41톤), 거제수협(20톤) 등 남해안지역으로 197톤이 위판되었다. 한편, 원양산은 조업이 원활히 이루어지고 있으나, 2월 말까지 반입실적은 없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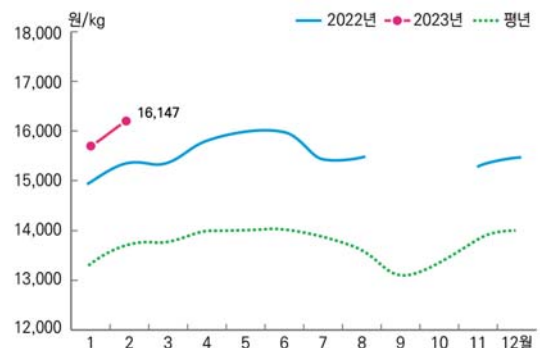


□ 가격동향(2월 냉동오징어 소비자가격, 전월 대비 3% 상승한 kg당 16,147원)

2월 오징어(신선냉장) 산지가격은 위판량이 미미하고 가공용 매수세가 적어 전월 대비 1.5% 하락한 kg당 4,925원이었다. 이는 작년보다 41.1% 높은 가격이다.

반면 오징어(신선냉장) 소비자가격은 연근해 생산 감소로 전월 대비 2.4% 상승한 kg당 23,740원이었다.

오징어(냉동) 도매가격은 전월과 비슷한 kg당 10,422원에 형성되었으나, 소비자가격은 전월 대비 3.4% 상승한 kg당 16,147원이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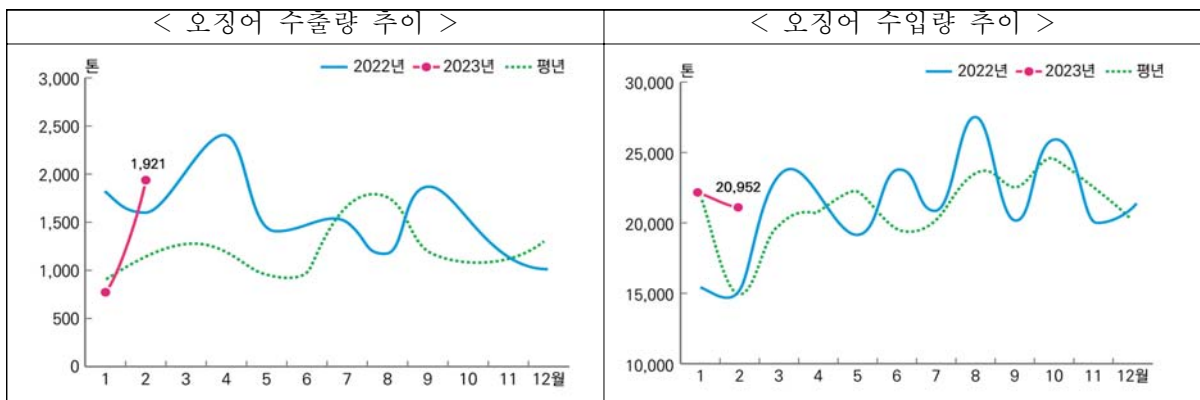
□ 수출입동향(2월 오징어 수입량, 전월 대비 5% 감소한 2만 952톤)

2월 오징어 수출량은 1,921톤으로 전월 대비 2.5배 가까이 증가했다. 제품 형태별로는 냉동오징어가 1,342톤, 기타 제품은 579톤이었다. 국가별로 살펴보면, 중국으로 939톤, 미국으로 722톤이 수출되어 상위 2개국으로의 수출량이 대부분을 차지하였다.

2월 오징어 수입량은 2만 952톤으로 전월 대비 5.3% 감소했으나, 작년 및 평년 동월에 비해 각각 35.4%, 39.8% 많았다.

제품 형태별로는 냉동제품 7,124톤, 기타 1만 3,828톤이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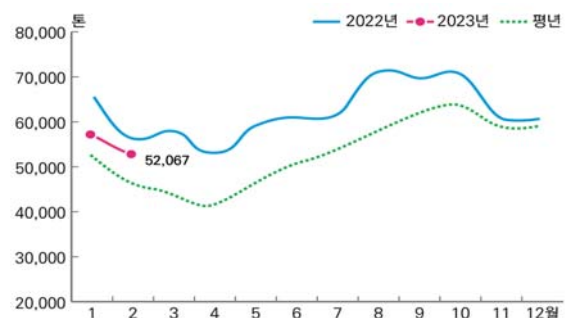
국가별로 살펴보면, 페루산이 1만 3,151톤으로 가장 많았으며, 다음으로는 중국산 6,586톤, 베트남산 282톤 등이 수입되었다.



□ 재고동향(2월 오징어 재고량, 전월 대비 8% 감소한 5만 2,067톤)

2월 말 기준 오징어 재고량은 5만 2,067톤으로 전월 대비 8.0% 감소했으며 작년 동월에 비해서도 7.4% 적었다.

여한기로 연근해 생산은 미미하겠으나 원양산 반입이 시작되며 재고량은 전월 대비 증가할 것으로 전망된다.



* 자료 출처: KMI 수산물측 3월호



2월 명태 국내 동향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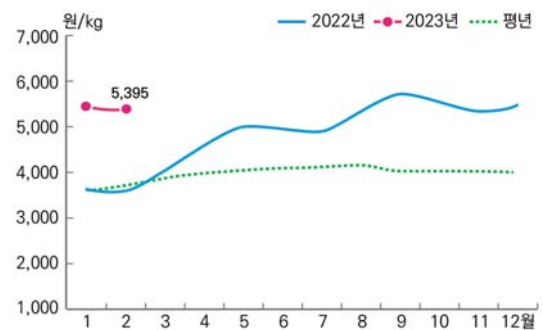
휴어기로 생산 없었으며, 소비자가격 약보합세

□ 가격동향(2월 명태(냉동) 소비자가격, kg당 5,395원으로 전월 대비 약보합세)

2월 명태(냉동) 도매가격은 전월 대비 약보합세인 kg당 2,545원이었다.

명태(냉동) 소비자가격도 kg당 5,395원으로, 설 성수기 정부비축물량 방출 종료 이후에도 물가 안정을 위한 상시방출*이 계속되면서 전월 대비 약보합세였다. *정부비축 상시방출(명태·고등어·오징어) : 2023.2.6~2023.3.5

그러나 여전히 작년 및 평년 동월에 비해 각각 50.4%, 46.2% 높았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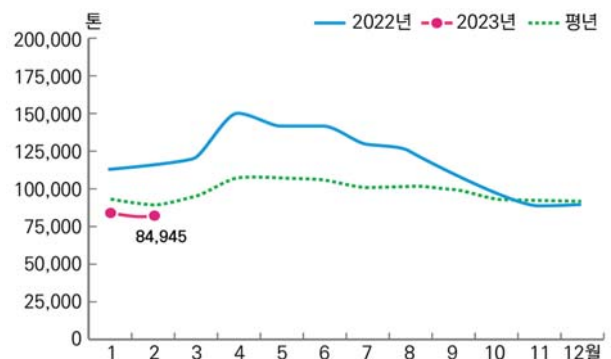


주: 2023년 2월은 잠정치 / 자료: aT KAMIS

□ 재고동향(2월 재고량, 전월 대비 감소)

2월 말 기준 명태 재고량은 8만 4,945톤으로 1월에 원양 명태 반입이 종료되고 수입도 줄어 전월(86,303톤) 대비 1.6% 감소했다.

또한 국내 재고로 집계된 對중국 재수출 물량의 영향도 줄어 작년 및 평년 동월에 비해 각각 23.3%, 7.2% 적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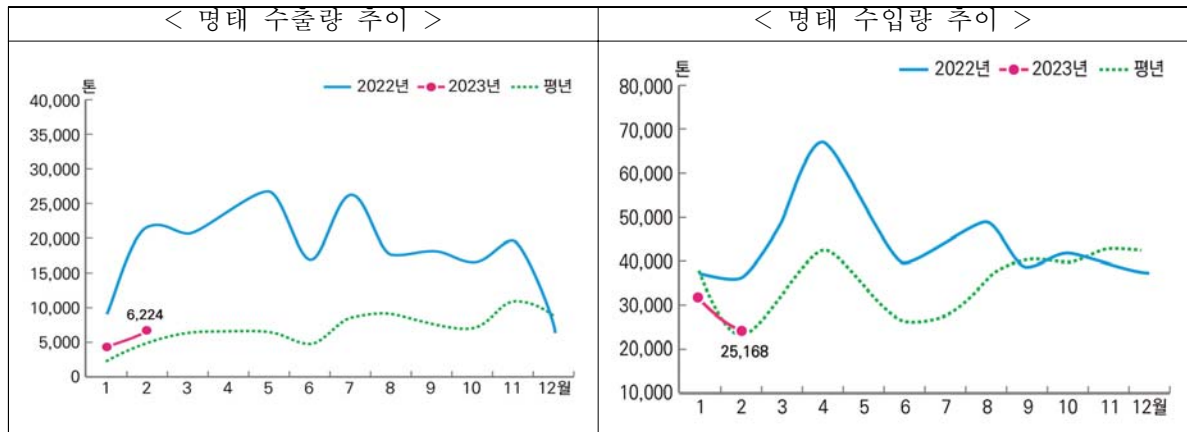




□ 수출입동향(2월 명태 수입량, 전월 대비 20% 감소한 2만 5,168톤)

2월 명태 수출량은 6,224톤으로 전월(4,297톤)보다 44.8% 증가했다. 평년 동월 대비 20.2% 많았으나, 중국으로 재수출 물량이 많았던 작년 동월에 비해서는 71.3% 적었다. 국가별로 살펴보면 중국(4,905톤), 베트남(804톤) 등의 순이었다.

명태 수입량은 2만 5,168톤으로 전월(31,592톤) 대비 20.3% 감소했다. 작년 동월에 비해서도 29.9% 적었으나, 평년 대비 8.2% 많았다. 국가 및 제품형태별로는 러시아산 냉동명태(17,995톤), 미국산 냉동연육(2,951톤), 러시아산 냉동필렛(2,331톤) 등의 순이었다. 2월까지 누적 수입량은 5만 6,760톤으로 작년 및 평년보다 각각 22.0%, 5.3% 적었다.



* 자료 출처: KMI 수산관측 3월호



SPRFMO 우리나라 전갱이 쿼터 10.5% 증가 12,753톤으로 설정

해양수산부는 지난 2월 7일부터 17일까지 에콰도르에서 개최된 남태평양지역수산물관리기구(SPRFMO) 제11차 총회에서 올해 우리나라 전갱이 쿼터가 전년 대비 약 10.5%(1,213톤) 증가한 12,753톤으로 설정되었다고 밝혔다. 남태평양지역수산물관리기구는 우리나라, 미국, EU, 에콰도르, 칠레 등 총 16개 국가가 가입한 국제수산물기구로 남태평양 공해상의 전갱이, 대왕오징어 등의 자원 보호 및 지속가능한 이용을 위해 2012년에 설립되었다.

각 회원국의 남태평양 전갱이 쿼터는 남태평양지역수산물관리기구에서 매년 실시하는 전갱이 자원평가 결과와 국가별 할당 비율에 따라 결정된다. 이번 전갱이 쿼터 증가는 해당 수역의 자원평가 결과가 지난해에

이어 이번에도 긍정적으로 도출된 것에 따른 것이다. 이는 모든 회원국이 전갱이 자원량을 지속 생산이 가능한 상태로 개선하기 위해 노력한 결과로 평가된다.

또한 올해 처음 조업제한 조치가 합의되어 국가별로 쿼터가 배분된 대왕오징어의 경우, 우리나라는 최대 50척(45,773톤)까지로 조업 쿼터가 설정되었다.

김현태 국제협력정책관은 “지속적인 전갱이 수산자원과 어업쿼터의 증가는 수산자원 보존과 지속가능한 어업을 실현하기 위한 국제사회의 노력이 제대로 작동하고 있다는 증거로 볼 수 있다.”라며, “앞으로도 해외 어장에서 우리나라 어선들이 수산자원을 보호하면서도 안정적으로 조업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지원하겠다.”라고 밝혔다.

한국-영국 간 해기사 면허 상호인정 양해각서 갱신 영국령 도서국가 선박에도 우리나라 해기사 승선 가능

해양수산부는 2월 20일 영국 해사연안경비청(Maritime And Coastguard Agency)과 항해사, 기관사 등 해기사 자격면허(이하 ‘해기면허’)를 상호인정하는 양해각서를 갱신했다고 밝혔다.

그간 영국과는 2003년 해기면허 상호인정 양해각서 체결을 통해 영국 등록 선박에 한해 우리나라 해기사가 승선할 수 있었으나, 이번 해기면허 상호인정 양해각서 갱신으로 우리나라의 해기사가 영국령 도서국가(버뮤다, 케이만제도 등)의 선박에도 승선할 수 있게 되었다.

국제해사기구(IMO)의 「선원의 훈련·자격증명 및 당직근무의 기준에 관한 국제협약(STCW)」에 따르면, 국제항해를 하는 자국의 선박에 외국인 해기사를 승선시키기 위해서는 당사국 간 상호인정 양해각서를 체결해야 한다.

영국과 영국령 등록선박은 전세계 선박 중 2.2%(4,735 DWT)를 차지하고 있으며, 대한민국 선박(0.7%, 1,564만 DWT) 대비 3배가 넘는 선박 규모를 보유하고 있다. 특히, 영국령 국가들에는 영국 대비 3배가 넘는 규모의 선박이 등록되어 있다.



우리나라 주변 해수면, 2100년까지 최대 82cm 상승 전망 국립해양조사원, 전망

해양수산부 국립해양조사원(원장 이철조)은 기후 변화에 관한 정부간 협의체(IPCC) 제6차 보고서의 새로운 기후변화 시나리오(SSP)를 적용한 우리나라 주변 해역의 미래 해수면 상승 전망(~2100년) 정보를 3월 9일부터 국립해양조사원 누리집 ‘바다누리 해양정보 서비스(www.khoa.go.kr/oceangrid)’를 통해 국내 최초로 제공한다고 밝혔다.

국립해양조사원은 서울대학교 조양기 교수팀과 공동으로 우리나라 주변 고해상도(수평 약 6km) 해양기후 수치예측모델에 SSP 시나리오를 적용하여 우리나라 주변 해역의 평균해수면 상승 폭을 분석했다. 그 결과, 온실가스가 저감 없이 배출되는 고탄소 시나리오(SSP 5-8.5)에서 해수면 높이는 2050년까지 25cm, 2100년에는 82cm까지 상승할 것으로 전망되었다.

반면, 온실가스 저감이 잘 실현되는 저탄소 시나리오(SSP 1-2.6)에서 해수면 높이는 2050년까지 20cm, 2100년에는 47cm까지 상승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우리나라 해역별 해수면의 상승폭과 상승률은 모든 시나리오에서 황해에 비해 동해가 다소 높을 것으로 전망되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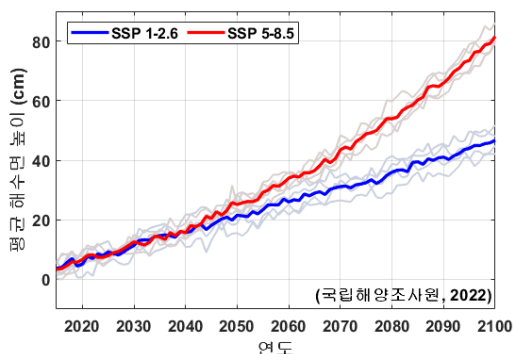
국립해양조사원이 지난 2021년에 IPCC의 제5차 기후변화 시나리오(RCP 8.5)를 적용해서 분석한 우리나라 주변 해수면 상승 폭은 2100년까지 최대 73cm로 나타났다. 그러나 이번엔 새로운 SSP 시나리오를 적용한 결과, 해수면 높이가 9cm 정도 추가 상승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미래로 갈수록 기후

변화에 따른 해수면 상승 속도가 더욱 빨라짐을 의미한다.

한편, 현재 분석 중인 SSP 중간 시나리오(2종, 2-4.5 / 3-7.0)에 따른 고해상도 미래 해수면 상승 전망 결과는 생산되는 대로 국립해양조사원 누리집을 통해 제공할 계획이다. 이외에도 각 조위관측소별 운영 이후 2021년까지 관측한 연평균 해수면 자료도 내려받을 수 있다.

신(新)기후변화 시나리오에 따른 해수면 상승 전망 공표는 기후변화에 따라 항만과 연안에서 침수, 침식 등 재해가 증대되는 상황에서 중장기 기후변화 적응을 위한 대책 수립의 핵심 기초자료를 제공했다는 데 의미가 있다.

이철조 국립해양조사원장은 “최근 기후변화와 해수면 상승에 대해 국민의 관심이 높다”며, “국립해양조사원에서는 금번 전망치 발표와 연계하여 전국 항만과 연안지역의 연안재해취약성(위험) 평가와 침수 예상도 작성 등을 전면적으로 현행화해서 적응대책을 잘 수립할 수 있도록 기여하겠다.”라고 말했다.





2023년도 제1회 해기사 정기시험 시행

3.11

해양수산부(장관 조승환)는 2023년 3월 11일(토) 부산을 포함한 전국 11개 시험장에서 2023년도 '제1회 해기사 정기 시험'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해기사 면허시험은 항해사, 기관사 등 해기사 면허를 새로 취득하거나 선박에서 상위직급의 선원으로 승무하기 위해 치러야 하는 시험이다. 해양수산부는 작년에도 코로나19 방역수칙을 철저히 이행하며, 해기사 정기시험 4차례와 상시시험 30차례를 안전하게 시행하였고, 총 1만 8천여 명이 응시하였다.

이번 2023년도 정기 제1회 해기사시험은 1급부터 6급, 소형선박 조종사 등 전 등급의 해기사 면허를 대상으로 부산, 인천, 여수, 마산 등 전국 11개 지역 시험장에서 동시에 진행되며, 2천 8백여 명이 응시할 예정이다.

해양수산부는 중앙방역대책본부의 '시험 방역관리 안내' 등을 철저히 준수하여 응시생이 안전한 환경에서 시험을 볼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시험 시간은 오전 10시와 오후 2시로 나누어 응시생들을 분산시키고

응시생 간의 거리도 최소 1m 이상 유지하여 응시생 간의 접촉을 최소화한다.

또한, 안전한 시험 진행을 최우선 목표로 사전 방역에도 만전을 기할 예정이다. 코로나19 확진자, 자가격리자 등은 문자안내 및 자진 신고 등을 통해 응시를 제한하고, 시험 전일까지 모니터링을 지속한다. 시험 당일에는 현장 발열검사를 통해 체온이 37.5도 이상인 응시생은 응시를 제한할 예정이다.

아울러, 시험 중 마스크 착용 권고, 시험 전·후 방역, 손소독제 비치, 시험장 환기, 순차 퇴실 등 시험장 내 방역안전대책을 철저히 이행하는 한편, 11개 지역별로 시험장 방역점검 담당관을 지정하여, 코로나19와 관련된 특이사항이 발생할 경우 관할 보건소, 소방서와 협력해 즉각 대응할 예정이다.

한편, 해양수산부는 이번 제1회 해기사 정기시험을 시작으로 6월, 9월, 11월 등 총 4차례에 걸쳐 응시인원 3천여명 규모의 정기 해기사 시험과 응시인원 4백여명 규모의 소규모 상시시험을 30차례 시행할 계획이다.

한국원양산업협회 부서별 연락처

임원실	성명	전화번호	비고
회장	윤명길	589-1600	
상무	신현애	589-1602	해외협력본부장
이사	이형균	589-1603	경영지원본부장
비서(주임)	조한솔	589-1601/1621	비서, 출납업무

부 서		성 명	전화번호	담 당	부 서		성 명	전화번호	담 당
경영지원본부	총무부	강성현 부장	589-1604	총괄 총무, 자금 서무관리, 차량운영	해외협력본부	해외협력 1부	신현애 상무	589-1612	총괄(검직)
		공길웅 과장	589-1605				최봉준 과장	589-1613	국제 협력
		조성환 과장	589-1606				백상진 주임	589-1614	참치선망
	기획홍보부	이형균 이사	589-1607	총괄(검직) 기획, 홍보 원양뉴스, 생산통계			정윤경 사원	589-1615	참치연승
						해외협력 2부	진호정 부장	589-1616	총괄 오징어, 기타트롤 북양, 쫄치
					최상진 사원		589-1617		
	회원지원부	김민재 사원	589-1609	이승환 사원	589-1618				
				부산지부	-	이성재 이사	(051)	총괄 확인업무(수출,반입등)	
						김현애 과장	253-3388		
					공인 계량소	이동주 팀장	051)	차량계량	
						최광준 팀장	253-3391	차량계량	

해외수산협력센터(세종)	센터장실	이상목 센터장	044-868-7360	협력센터 총괄	국제협상지원팀	-	김수민 전문관	044-868-7831 044-868-7363	일반/지역수산기구 일반/지역수산기구
	기획운영팀	이희진 팀장	044-868-7834 044-868-7837	행정총괄, 명예수산물 OFIS, 해외수산투자, 행정	해외진출지원팀	-	윤유정 행정관	044-868-7836 044-868-7838	ODA 통계, 협의회
	국제협상지원팀	양재걸 전문관	044-868-7364	일반/지역수산기구					

■ 협회 홈페이지 : www.kosfa.org ■ 팩스번호(서울) : 02-589-1630/1, (부산지부) : 051-253-3392, (해외수산협력센터) : 044-868-7840

명예해양수산물 연락처

담당지역	성명	연락처
사모아	오시영	1684-258-9900 syoh_2@hotmail.com
피지	김종태	679-330-7188 ckpfj@naver.com
인도네시아	이재원	62-0343-4742525 imsindo@hanmail.net
가나	이윤홍	233-303-200995 skshipafrica@yahoo.com
세네갈	김점봉	221-33-853-0850 senegalkim@gmail.com
뉴질랜드	윤정환	64-3-344-1617 seajho@xtra.co.nz
파푸아뉴기니	정승화	675-321-8137 jc651016@gmail.com
아르헨티나	이상우	54-223-495-0712 kargeexport@gmail.com

해외협력자문위원 연락처

담당지역	성명	연락처
남아공	조창원	27-21-447-1634/1515 saka0505@naver.com
수리남	박권현	597-42-2185 donghee_sur@yahoo.co.kr

원양산업
제1155호

발행 : 2023년 3월 15일
등록일자 : 1981년 8월 27일
등록번호 : 서울라-9183호 / 간별 : 월간

발행처 특수
법인 한국원양산업협회

서울특별시 서초구 논현로 83
(양재동, 삼호물산B/D A동 6층)

발행인 윤명길
편집인

당신과 가족의 건강을 지켜드립니다.



현명한 주부는 원양산 생선을 좋아해~

【원양산과 수입산 구별 요령】 원양산은 원산지 표시를 「원양산」 또는 「원양산(해역명)」으로 표시하므로 '원양산' 표기 여부를 확인하면 된다. <사례 : 원양산 또는 원양산(대서양)>

통조림용 참치조림 장면

원양생선은 우리나라 어선이 잡는 즉시 선상에서 위생적으로 냉동처리하기 때문에 수입수산물과는 달리 유통과정에서 변질되거나 오염될 가능성이 적어 안심하고 드실 수 있습니다.



참 치 회

DHA, EPA, 셀레늄이 풍부



참치통조림

심장병 등 성인병 예방



오징어

피로회복 성분,
타우린 다량 함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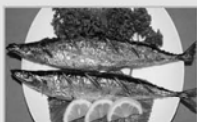
명 태

칼슘과 단백질이 풍부



조기류(민어과)

제수용 생선으로 제격



공 치

불포화지방산 다량 함유

원양산 생선을 수입산과 동격 취급 마세요!



◎ 원양산 생선이 수입산보다 왜 좋을까?

01

내국물품 (우리 어선이 잡은 생선)

원양산은 우리나라 어선이 외국 원양 수역이나 해외 공해상에서 잡아 직접 국내로 들어오는 생선이기 때문에 연근해산과 마찬가지로 내국 물품에 해당한다. 반면 수입산은 외국물품으로 관세가 부과된다.



02

오염우려 없는 친환경 생선

원양산은 대부분 청정해역이나 오염이 되지 않은 대양에서 안전한 위생 기준(HACCP)에 의해 생산되어 식품안전성이 수입산과 달리 뛰어납니다.



03

선상급랭 시설을 통한 우수한 신선도 관리

우리나라 원양어선들은 선상급랭 시설이 매우 우수해 어획 즉시 선상에서 곧바로 급랭하여 국내로 반입되기 때문에 수입산에 비해 신선도가 훨씬 뛰어납니다.

